

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保全)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5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의 전국 회원YWCA 가족

가	다	서울	울산	천안
강릉 033.651.1385	대구 053.652.0070	02.3705.6000	052.247.3520	041.575.0961
거제 055.682.4950	대전 042.254.3035	041.951.6400	033.742.6090	043.265.3700
경주 054.772.8141	동해 033.531.3007	031.708.2503	의정부 031.853.6332	033.254.4878
고양 031.919.4040	마	044.865.0872	익산 063.857.8910	043.848.3240
광명 02.895.1966	마산 055.246.8746	속초 033.635.3523	인천 032.424.0524	타
광양 061.762.0012	목포 061.242.1611	수원 031.252.5111	자	통영 055.646.2547
광주 062.524.3511	바	순천 061.744.7990	전주 063.224.5501	파
김해 055.332.6000	부산 051.441.2221	아	제주 064.711.8322	파주 031.945.5998
나	부천 032.668.9700	안동 054.854.5482	제천 043.646.6009	평택 031.651.7701
남양주 031.577.7762	사	안산 031.483.6536	진주 055.755.3463	포항 054.274.4444
남원 063.632.7002	사천 055.833.2344	안양 031.455.2700	진해 055.542.0020	하
논산 041.736.7393	서귀포 064.762.1400	양산 055.367.1144	창원 055.283.9488	하남 031.793.7771

촬영(한국YWCA) 2014. 09



2014. 9

한국YWCA

이달의 생각

함께 나누고 같이 하여
 '우리들의 평화' 만들자

특집

청년과 평화 그리고 통일까지

이달의 현장

제16차 한일YWCA 청소년협의회

지역운동이야기

지구시민활동가 도스프 2기 활동보고

(사)한국YWCA연합회



길을 걷다 시멘트 틈새에서 내게 손짓하는 십자가를 만났습니다.
사랑의 하트 모양 잎사귀를 달고 있는 팽이밥이 십자가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길 위에서 만난 십자가는 사랑을 가득안고 내게 달려오시는
예수님이 저 먼 하늘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다고 들려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갈6:14)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매일의 삶을 승리하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치유하고 나를 온전케 하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은혜의 통로입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고, 매 순간 십자가를 붙들어야하는 충분한 이유이지요.

십자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내 삶 속의 모든 곳에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글 / 최병성 (목사, 환경생태운동가)

목 차

- 04 이달의 생각 함께 나누고 같이 하여 '우리들의 평화' 만들자 | 이은영
- 05 월레아침기도회 생명 위기의 시대 - 공감과 연대의 지도력으로 | 최만자
- 06 연합회 사무총장 보고 9월의 한국YWCA | 유성희

특집 청년과 평화 그리고 통일까지

- 08 청년평화 ① 이 시대의 청년을 품으라 | 김은혜
- 10 청년평화 ② 2014 YWCA 청년평화캠프 | 편집실
- 13 평화통일 ① 한반도 정세와 통일연애론 | 정육식
- 15 평화통일 ② 서울, 워싱턴, 평양을 잇는 평화의 기도회

칼럼

- 18 탈핵 고준위(高準位) 핵폐기물 | 김익중
- 20 여성 막장 드라마 그만 보고 싶다 | 이경순
- 22 청년 욕심 없는 평화 세상을 꿈꾸며 | 권승준

- 24 이달의 묵상 거룩한 선택 | 이천진
- 27 이달의 현장 ① 2014년 제2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 | 편집실
- 28 이달의 현장 ② 2014 YWCA 복지관, 자활·노인센터 직원연수 | 편집실
- 29 이달의 현장 ③ 북한어린이돕기사업단 워크숍 | 정미란
- 30 이달의 현장 ④ 2014 키다리 연대캠프 | 편집실
- 32 이달의 현장 ⑤ 제16차 한일YWCA 청소년협의회 | 손지수·김광식
- 34 이달의 현장 ⑥ 2014 모금워크숍 | 조영미
- 35 지역운동이야기 지구시민자원활동가 도스프 2기 활동보고
| 김은경·홍진영·김은정·김미애
- 39 성인지통계 남녀 청소년의 의식 조사
- 40 북한어린이돕기 식량난으로 북한어린이 영양결핍 심각 | 김주영
- 41 연합회 소식



표지이야기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대전에서 열린 2014 YWCA 청년평화캠프는 평화를 향한 열정으로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탈핵을 외치며 평화로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제50권 제7호 통권 513호 2014년 9월 12일 발행 (등록번호 라-746호) 발행 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차경애 편집인 유성희 홍보출판위원회 문권희·백수경·신선·원영희·윤혜원·이경순 편집 박은실·이주영·전하예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한국YWCA연합회 전화 02-774-9703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http://www.ywca.or.kr 편집디자인 (주)세이미디어 (02-730-0746) 인쇄 중무기획인쇄 (02-2263-3223)

한국YWCA연합회는 세월호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함께 나누고 같이 하여 '우리들의 평화' 만들자

글 | 이은영 (연합회 실행위원)



지난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온 나라가 교황의 행보에 관심을 가지고 언론은 교황의 일거수 일투족을 뉴스로 내보냈습니다.

교황은 청년들에게 '삶을 발코니에서 바라보지 마라, 삶의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증거를 입으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증거하라'는 메시지를 주었고 세계 평화를 위한 청년들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청년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평화의 문제가 매우 절실한 실존의 문제입니다. 이미 우리는 61년째 휴전협정 상태로 살고 있고 북한의 핵 문제 등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의무징병제가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작금의 군폭력으로 인한 피해 청년들의 문제를 보면, 과연 휴전협정의 지속과 북한 핵 문제 등으로 인한 정치적 그리고 사회경제적 불안과 그 피해가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세대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땅의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평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생존과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늘 내전과 전쟁이 빈번한 아프리카와 중동,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평화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선결조건입니다. 또한 전 세계 곳곳에서 가정폭력, 학

교폭력, 언어폭력 등 다양한 폭력에 시달리는 청년과 아이들, 또한 지역갈등, 인종갈등, 종교갈등으로 인한 분쟁에 노출된 이들에게도 평화는 실존의 문제입니다. 전쟁과 폭력으로 삶이 해체된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YWCA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평화의 문제를 청년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달 13일부터 14일까지 청년평화캠프를 통해서 청년회원들이 '우리가 만드는 평화세상'이라는 주제로 탈핵과 평화 이슈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또 7,8월에는 인도에 파견된 도스프 청년봉사단이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돌아왔습니다.

매주 화요일 명동에서 진행되는 탈핵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YWCA 세계대회에서도 일본Y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의안을 발의하고 채택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YWCA의 평화를 위한 노력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앞으로 청년들의 참여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또 그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경쟁에 익숙하고 찌든 이 땅의 청년들이 남을 이기고 빼앗음으로 얻는 나만의 왜곡된 편안함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같이 함'으로써 '우리들의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YWCA가 청년과 함께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생명 위기의 시대 공감과 연대의 지도력으로

글 | 최만자 (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위원, 여성신학자)

민수기 12장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갈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구약성서를 사회사적 관점에서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아론, 모세, 미리암은 표면적으로는 혈연관계로 맺어진 삼남매로 나타나지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서 보면 세 사람은 탈출 공동체를 이끈 민족의 세 지도자로 볼 수 있다. 그들이 각기 역할을 담당하면서 애굽 파라오의 억압에서 민족을 탈출시킬 수 있었고 광야의 생활을 인도하였다고 한다. 아론의 지도자적 위치는 뚜렷해 보이지만 미리암의 지도력으로서의 위치는 그리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상상력을 약간 동원하고 성서의 몇 본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미리암이 공동체의 지도자였음을 금새 알게 된다.

본문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에서는 모세를 중심으로 내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를 절대적 지도력으로 인정하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다. 자신에게 도전한 미리암을 위해 간곡히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은 그가 관용을 베풀고 반대자도 품어 안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인 지도자임을 확실하게 그려준다. 아론은 사제가 피부병에 걸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 제외되고 결국 미리암만 중병에 걸리는 징벌을 받는다. 지도력에 대한 도전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무거운 징벌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메시지를 교권이 강력히 해석해 온 것이다.

그런데 왜 미리암만 악성 피부병에 걸렸는지 매우 다른 시각의 해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래전 나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자신이 나환자가 되었던 한 성직자의 고귀한 삶이 연상된다. 약간의 상상을 더하면 미리암은 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고 보여진다.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 삶의 자리에 늘 함께했던 미리암, 그는 결국 민중의 고통 안에 들어갔고 그들과 아픔을 같이하였던 듯하다. 출애굽의 준비를 할 때도 남성 지도력들은 정책 결정의 자리에만 있었지만 미리암은 사람들의 집집을 찾아다니며 문설주에 어떻게 양의 피를 발라야 하며 탈출을 위한 음식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옷가지들 등 물품들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생활 내용들을 현장에서 도왔던 것으로 보인다.

공동체는 미리암의 병이 다 회복될 때까지 애타게 그의 회복을 기다리며 행군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들은 미리암을 사랑하며 그와 함께하기를 기다렸다. 민중의 고통 속에 있는 미리암, 미리암의 고통을 알고 그의 회복을 기다리며 함께하는 공동체, 본문은 우리에게 한 여성 지도력이 이끈 아름다운 관계의 공동체를 상상하고 발견하게 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그 공동체는 직면하였던 모든 위기상황을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YWCA는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라는 표제를 내걸고 열심을 다해 활동하고 있다. 미리암의 지도력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우리들도 '미리암과 같은 지도력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미리암처럼 고통당한 이들의 곁에 함께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사회는 아픈 이들과 공감하고 연대하는 지도력을 절실히 요구하는 현실에 처해있고 그러한 지도력에 의해서만 공동체의 위기를 이겨 낼 수 있다. 지금의 우리에게 공감하고 연대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필요한 관계맺음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수천년 동안 인격 평가에 오해당하고 그 인격을 오히려 훼손당해 온 미리암 선조를 새롭게 만나고, 찢어져 아픈 우리 사회 안에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 공감과 연대로 지도력을 펴는 YWCA가 되기를 바란다. 

9월의 한국YWCA

글 | 유성희 (연합회 사무총장)

Special
특집

청년과 평화 그리고 통일까지

“올해의 우리 목표는 생존이에요. 수련회에 가면 건물이 무너지고, 차를 타면 바퀴가 빠져 죽고, 수학여행을 가면 물에 빠져 죽고, 학교나 군대에서는 맞아 죽으니깐요. 그냥 살아있는게 목표예요.”

아이들이 우스개조로 하는 소리인데, 듣는 부모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습니다. 충격적인 사건과 사고가 계속되면서 주위에서 뉴스를 보지 않으신다는 말씀도 듣게 됩니다. 매슬로우가 정의한 인간의 욕구 중 가장 하위단계인 생존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희망보다 절망을 먼저 배우는 우리의 청소년, 청년들의 모습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기독교운동체인 YWCA는 젊은이들이 온 인류가 평등한 사회의 기초 위에서 참된 신앙인으로 훈련되어 정의, 평화, 창조질서가 보존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존재합니다. 인간의 존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소중함이 어느 순간에도 지켜져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목표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희망'을 되찾는 일에 YWCA는 매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여름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52개 지역의 YWCA와 300여 복지, 보육, 청소년, 자활, 직업교육 센터를 통해 생명이 살아 숨쉬는 지역공동체, 치유와 돌봄이 있는 지역사회를 이루기 위해 Y의 회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습니다. 연합회를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생명의 세상을 이어주기 위한 탈핵운동, 분단극복의 노력, 청소년 대안교육운동, 청년리더십 양성의 지원, 사회적 돌봄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아직도 아픔을 겪고 있는 안산과 진도의 현장 지원을 위해 회원Y의 모금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1차로 안산YWCA가 진행 중인 공동체 치유 프로그램- '노란 우체통' 사업을 지원하였고, 연합회 중점운동국과 지역위원회 대표들께서 팽목항에 남은 가족들을 위로하는 기도회에 참가합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YWCA는 우리의 안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노후원전 운행중단을 촉구하는 '탈핵 불의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영, 남양주, 성남, 하남, 제주, 인천Y가 8월말부터 9월까지 주관Y로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후원전 폐쇄를 위한 서명운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열리는 캠페인에 직접 오셔서 서명을 해주시거나, 회원Y에서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YWCA가 시민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회의 변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노력 중 하나가 Y의 목적에 찬동하는 회원과 후원자를 만나는 일입니다. 3회에 걸쳐 진행된 모금워크숍은 현재의 활동에 자족하는 Y를 넘어서, 거대한 사회의 흐름을 이끄는 Y의 역할을 함께 찾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참가한 회원YWCA 대표들은 단순한 재정의 확보로 생각될 수 있는 모금활동을 '사회운동'으로 개념을 전환시킴으로써, 기존의 모금활동의 의미와 방식도 함께 보완하고 개발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청년리더십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으로 진행된 한일 YWCA 청소년협의회와 인도 파견활동인 '도스프' 사업이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참된 친구의 의미와 지구시민으로서 청년의 과제를 찾았다는 참가자들의 이야기가 가슴에 남습니다.

북부지역에서 주관하신 연변의 평화 연수를 통해 연변 조선족 여성들과의 교류와 통일의 염원을 깊이 나누신 경험도 앞으로 이루어질 평화의 세상을 위한 준비라 믿으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느 해보다 이르게 맑은 추석, 유난히도 크게 비추었던 보름달의 환한 빛을 보았습니다. 풍성함을 누릴 여유가 없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주시고 희망을 보여주셔서 더 환한 빛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생명의 세상으로 가는 여정이 쉽지 않겠지만, 믿음을 더 굳게 세워, 힘차게 행진하는 YWCA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청년평화 ① _ 이 시대의 청년을 품으라 | 김은혜
- 청년평화 ② _ 우리가 만드는 평화 세상 | 편집실
- 평화통일 ① _ 한반도 정세와 통일연애론 | 정옥식
- 평화통일 ② _ 서울, 워싱턴, 평양을 잇는 평화의 기도회



이 시대의 청년을 품으라

글 | 김은혜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년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주제이고, 한국 교회에서 청년들의 이탈 현상은 지난 2012년 2월 이후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실 청년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 중간 지도력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교회 청년들에 관한 굉장히 심각한 통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신학적, 재정적, 행정적 지원 없이 심각하다는 인식만 하고 있을 뿐이다. 여전히 성인 위주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의 소리를 가슴으로 듣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해서 그들이 한국 교회에 바라는 기독교의 미래는 어떤 것인지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할 때에 청년 목회에 대한 방향을 잃은 한국교회에 청년이 다시 교회의 주체로, 하나님 나라의 주체로 서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교회가 매력적일 수 있을까. 청년들의 삶에 교회를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떠나는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이 젊은 세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최근 서구 사회의 문화 현상을 대표하는 표현 중 하나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I'm Spiritual, not religious)이다. 이 세대의 청년들은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미래가 어둡고 마음이 답답하고 어찌할 수 없는 이 삶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싶어한다. 근대 담론에서 이야기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의 끝에 선 젊은이들이 유아기 때부터 경쟁이란 정글 속의 자본주의에 길들여져, 그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고 처절하게 비인간화 되고 있는지 우리 기성세대는 알아야 한다. 사실 청년들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빨리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

합리와 이성으로 무장한 기성세대와 달리, '옳고 그름'보다 '좋고 싫음'이 빠른 이 세대를 어떻게 봐야 할까.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으로, 감각으로, 온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좋다'라고 하는 것을 도덕적 선함과 어떻게 결부시켜 함께 갈 수 있을까. 이런 모순 속에 청년들은 영성에 대해 갈급할 수밖에 없다. 근대의 성장이 자신들의 삶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성, 합리, 개발 그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을 추구하게 된 것이 지금의 청년들이다. 대안을 발견하려면 '그 너머'(beyond)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것'(something spiritual)을 찾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들이 이제 교회가 싫다고 하는 의견을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도적인 면이나 교리적인 면 모두 전혀 내 삶과 상관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다. 소통하지 못하고, 이중적 윤리를 강요하고, 늘 우리를 죄인이라고 바라보는 저 교회는 갑갑해서 내 삶을 맡길 수도 없고 가고 싶은 공동체로 선택하고 싶지도 않다는 것이다. 내 공동체로 품고 살 자신이 없다는 것이 청년들의 고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적 교회 운동들이 있다. 최근의 대안적 교회 운동은 차분한 이성과 정서적 건강함을 가지고 미래를 치열하게 고민하기보다는 본능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추구한다. 그래서 세상과 오히려 더 분리되어 가는 듯 보이고, 오히려 쉬운 길을 쫓아가고 있고, 젊은 이들의 본능을 상품화해 기존 교회와 다른 큰 교회를 만들기도 한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보다는 '힐링'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 힐링은 이미 상업화되어서 우리 곁에 와 있는 것이기도 하다. 힐링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준다는 것은 급진적 가치의 개혁이 없이는 이를 수가 없다. 힐링의 가치를 포용하면서 이를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성찰이 필요하다. '영적인 것은 좋지만 제도적인 것은 싫다'라는 이 세대의 고백 너머에 있는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 교회 현장에서 성공하고 있는 대안적 교회 운동의 이상적인 모습은 깊은 영성을 추구하면서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하고 있는 교회이다. 이성과 합리성(세상이 주는 것)을 뛰어넘어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깊은 영성이 청년들에게는 너무나 갈급하다. 청년들이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성찰하고,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말씀을 공부하며, 지성과 영성이 조화를 이뤄 한 인격 내에서 역할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정의·평화·생명운동을 전개하는 YWCA가 '생명'이라는 단어를 집중하는 것은 시대를 잘 읽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을 살리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려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연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어머니의 심정으로 연대와 돌봄과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성장과 발전은 기술로 가능하지만, 한 생명을 살리는 데는 총체적 영성과 이성이 필요하다.


특히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은 예수가 우리에게 준 생명이며, 그로 인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을 의미한다. 7월의 나뭇잎처럼 파릇파릇한 충만한 생명을 누리도록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한 시대정신을 붙잡는 단어이다. 생명과 함께 떠오르는 키워드는 '영성과 윤리'이다.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나게 할 것인가. 이것이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내적 갈망이다.

88만원 세대들은 대학을 나왔지만 시급 5천원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능력의 부재로 못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지금 20대는 처절한 것이다. 이런 청년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진정으로 힐링하면서 소통하고, 또 이해하면서 가기 위해서 교회는 깊은 영성이 필요하다. 혼계하고 가르치면 안 된다. 책임은 이 아이들에게 있지 않다. 신자유주의 경제가 만연한 2007년 이후 비인간화를 촉진하는 금융자본주의를 진지하게 재

고하고 눈 앞에 보이는 맘몬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또한 교회와 우리 기성세대는 어떻게 하면 영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세상을 발전시켜 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힘들었던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의 희망을 발견하고자 하는 욕구가 체계화된 무기력감으로 가리워져 있는 사실이었다. 기독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나라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면 '그건 목사님 이니까, 신학자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하나님 나라 비전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사치스러운 이야기다'라고 했다. 처절한 패배감, 사회적인 잉여라고 하는 좌절감,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체계화되고 체제에 순복해 버린 기독 청년들.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무기력감과 절망감이 엄청나다는 것을 느꼈다. 절망감이 엄청나니까 반대 급부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잠시 해소될 수 있는 것들(게임이나 술)로 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청년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대답을 주어야 한다. 그들의 '종교적이지 않다'(not religious)에 대한 핵심은 사후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는 결론을 말한다. 마치 사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약간 거리를 두면서도 자본주의 논리에 함몰되어 갈 수밖에 없는 교회의 모습을 청년들이 이미 직시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우리 교회는 사회, 역사,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무관심한 삶의 태도에 대해, 마치 하나님이 교회의 울타리 내에서만 계시는 양 사는 삶의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과 소통하며 이 세계와 우주의 역사에 우리의 참여를 원하시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신앙과 삶의 영역을 통합하며 삶의 실제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젊은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게 할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다. 



우리가 만드는 평화 세상

-25개 회원Y 230명 참가

글 | 편집실

2014 한국YWCA 청년평화주간을 맞이해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간 대전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2014 YWCA 청년평화캠프'가 '우리가 만드는 평화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전국 25개 회원YWCA 소속 Y-틴, 대학청년Y, 실무활동가 총 230여 명이 모여 우리 시대의 청년과 평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함께 고민한 캠프 현장을 찾았다.

08월 13일

여는 모임 - 평화 세상 열기



전국 25개 회원YWCA에서 Y-틴 135명, 대학청년Y 51명, 실무자 27명이 속속 대전으로 도착했다. 회원Y별로 입장하며 정해진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체육관 내에는 환영의 박수와 환호가 넘실댔다. YWCA 인터넷 방송국인 YWBS 8기 김민지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먼저 연합회 차경애 회장과 인도YWCA 라일라 파사 전(前) 사무총장이 영상으로 참석자들을 환영하고 격려했다. 인디밴드 '아몬드'의 공연에서는 '향기나지 않아도 너는 빛나고 있어'라는 가사로 지친 마음을 안고 사는 회원들을 위로하는 공연을 펼쳤다.

아이스 브레이킹 & 체육대회



Y-틴과 대학청년Y가 각각 진행한 '아이스 브레이킹'에서는 친교 시간을 가졌다. Y-틴 프로그램은 중앙임원들이 준비한 게임으로 진행됐다. 대전Y가 준비한 대학청년Y 프로그램은 문자메세지로 퀴즈 맞추기, 몸으로 말하는 스피드 퀴즈, 노래 제목 맞추기 게임 등이었다. 그리고 참가자 모두가 함께하는 체육대회를 통해 단합심을 기르는 '몸으로 나누는 평화'를 경험했다. 줄다리기, 색깔판 뒤집기에 이어 미션 이어달리기에서는 조별로 긴장감이 한층 고조됐다.

Y-틴 프로그램



저녁 시간 Y-틴은 10여년 전 대전Y-틴 회원 출신인 승문중학교 신경준 교사의 '원자력 바로 알기' 강의를 들었다. 강의를 통해 핵발전소 폐쇄를 합의한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들어 한국 역시 탈핵 사회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자립을 실천하기 위해 승문중학교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노력해 온 사례들을 발표해 학생들이 집중하며 들었다. 강의 후 Y-틴 회원들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지역별 '탈핵' 활동을 보고했다. 조별로 '탈핵 슬로건 만들기' 워크숍 진행 후 결과물을 한쪽 벽에 전시했다.

대학청년Y 프로그램



대학청년Y는 연합회 북한어린이돕기사업단 한미미 위원장과 김익중 동국대 교수,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마린과 함께하는 'Y의 평화운동 토크콘서트' 시간을 가졌다. '보이는 라디오'의 방식으로 청주Y 회원들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Y의 안팎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세 분의 탈핵·평화운동 및 평화감수성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토크콘서트 이후 그룹별 평화나눔·활동 기획 시간까지 이어져, 대학청년Y 회원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평화와 Y의 평화운동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었다.

08월 14일

평화선언문 작성



다음날 아침 그룹별로 모여 평화선언문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룹은 첫 날 등록 시 '나의 평화', '공동체의 평화', '세상의 평화'라는 세 그룹 중에 원하는 그룹을 신청받아 진행됐다. 조별로 연합회 집행위원과 실무자들이 배치돼 Y-틴 회원들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이야기했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꿈꾸고 만들어 나갈 평화세상에 대한 고민을 담아 평화선언문을 작성했다. 대학청년Y는 대강당에서 그룹별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실천적인 다짐들을 평화선언문에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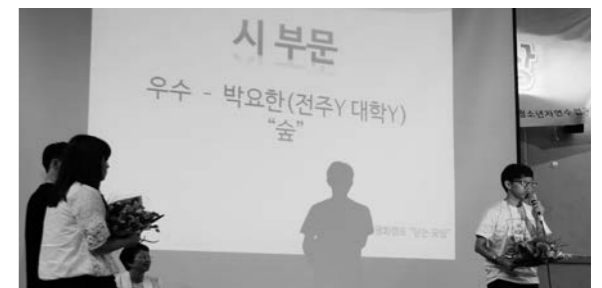
탈핵 플래시몹 촬영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캠페인 송 '핵을 반대합니다' 노래에 맞춰 울동을 배운 Y-틴과 대학청년Y 회원들은 체육관에서 울동을 익혔다. 'No More



Nuclear'라고 쓰인 검정색과 노란색의 단체티셔츠를 입고 'Y' 대열로 맞춰 '탈핵 플래시몹'을 펼쳤다. 몇 번의 NG를 낸 뒤에 이제 각 지역으로 흩어져 탈핵 캠페인에 울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다짐하며 촬영을 마무리했다.

닫는 모임 - 평화 세상으로



YWBS 8기 이연주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닫는 모임에서는 먼저 2014 YWCA 청년평화주간 청(소)년 논문·에세이·시 대회의 시상식이 진행됐다. 한영수 연합회 부회장이 시상자로 나섰고, 총 7명의 수상자 중 6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Y-틴과 대학청년Y 회원들의 고민과 실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진 평화선언문은 Y-틴 및 대학청년Y 일부 회원들과 연합회 실무진으로 구성된 '평화선언문 작성 워킹그룹'의 취합·정리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각 회원들을 위한 2개의 평화선언문으로 재탄생하였다. Y-틴 대표로 박한나 전국협의회 회장(동해Y)과 대학청년Y 대표로 신보미 연합회 집행위원(청주Y)이 각각 Y-틴과 대학청년Y 평화선언문을 선포했다.

2014 YWCA 청년평화캠프는 전국 Y-틴과 대학청년Y가 한 자리에 모여 Y-틴과 대학청년Y의 연대를 도모하고, Y의 젊은 회원들이 향후 Y의 평화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었다. Y의 젊은 회원들이 경쟁에 순응하고 다양성을 개발하지 못하는 사회 구조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시민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미래 설계의 역량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하길 기대해본다. YWCA



평화선언문

Y-틴

하나님의 창조 아래 서로 다르지만 유일하고 가치 있게 태어난 청소년인 우리는 평화와 자유 아래 자연과 공동체 안에서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학업 성적 중심의 학교문화로 다양한 개인의 가능성이 짓밟히고 있고 끊임없는 경쟁으로 빚어지는 스트레스로 인한 학교폭력 안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물질만능주의가 가져온 획일적인 가치, 외모지상주의, 학벌중심주의로 다양한 우리들의 꿈들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 생명을 파괴하는 핵무기와 핵발전소의 위협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평화와 이웃,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모습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는 다른 것이기에 우리 모두는 본래의 창조모습인 '더불어 사는 평화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한 꿈들이 존중받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경쟁보다는 나눔과 화합의 청소년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강요로 인해 획일화된 삶이 아닌 저마다의 개성이 펼쳐지는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분쟁과 갈등의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평화에 관심을 갖고 배우고 실천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인류의 전멸을 불러올 핵무기와 핵발전소의 위험을 알리고 핵 없는 세상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대학청년Y

우리는 존귀한 생명을 보장받고 나아가 생명의 존엄성을 알려야 할 존재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분쟁, 가난, 질병, 핵, 기아, 불통 등의 문제로 평화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 나의 평화, 우리의 평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나, 평화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인식을 위해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하나, Y 안에서 청소년들이 공동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하나, 미디어와 SNS 등에서 접하는 정보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하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

2014.8.14 청년평화캠프 참가자 일동

남북관계 개선해야 통일 가능

글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년 8월 12일 열린 'YWCA 평화기도회와 강연회'에서 강연한 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실었습니다.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선언¹⁾, 그리고 통일준비위원회
 '통일 대박'을 향한 통일준비위원회가 8월 7일 공식 출범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준위 위원장 자격으로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통일을 위한 낫선 여정에 스마트하고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오히려 통일과는 반대 방향으로 안내하는 고장난 내비게이션이 될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왜 그럴까? 우선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집착이다. 박 대통령은 3월 독일 드레스덴 연설에서 북한에게 악수를 청하며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손을 내밀기 전에 손가락질부터 먼저 하고 말았다. 또한 북한에게 악수를 하려면 핵부터 손에서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북한은 일인지 하에 이 제안을 거절했다. 이로 인해 2월 남북 고위급 접촉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로 손을 잡았던 남북관계는 또 다시 서로 육하며 삿대질하는 관계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남북관계는 '정체' 내지 '후진'하고 있는데, 구호성 통일은 멀리 앞서가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남북관계가 통일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거리가 멀어지고 만다. 오히려 현명한 방법은 남북관계가 앞서 가게 하고 통일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의 개선이 없는 통일 구호는 통일을 위해 필요한 남북관계 발전, 국민적 관심과 참여,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모두 어렵게 한다. 정부와 통준위가 이런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정말 스마트한 내비게이션을 장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기초 전망
 올 하반기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흘러갈까? 오랫동안

질은 먹구름에 짓눌려왔던 한반도에 최근 몇 줄기 햇빛이 드리워지고 있는데, 햇볕이 먹구름을 거둬내 화창한 날씨를 가져올지, 아니면 흐린 날씨가 계속 이어지거나 폭풍우가 몰아칠지 주목된다.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지금까지는 남북관계를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해온 관성이 컸다.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으로 방향을 전환할까가 핵심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북 강경파인 김관진 국방장관을 통일외교안보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임명한 것이나, 얼마 전 닷을 올린 통일준비위원회 인사들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보면 '마이 웨이'를 고집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동시에 박 대통령은 반공투사를 자처한 남재준 국정원장을 경질하고 최측근인 이병기 주일대사를 그 자리에 기용했는데, 그가 취임 일성으로 "남북관계가 좀 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결국 핵심 관건은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이 대통령과 정권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할 것인가의 여부에 모아진다.

통일이 결혼이라면, 남북관계는 연애다
 통일을 결혼에 비유하면 남북관계는 연애에 해당된다. 그런데 한 때 좋아졌던 남북한이 서로 등을 돌리고 삿대질을 한 지가 벌써 7년째 되고 있다. 통일의 대상인 북한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궁핍화와는 상반된 경로로 핵무장과 상당한 수준의 로켓 능력을 비롯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걸 북한을 보쌌이라도 해서 강제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제로 결혼하려고 했다가는 집안 전체가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애와 결혼의 대상인 북한을 바라보는 남한 가족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북한 및 통일 문제를 둘러싼 보혁간의



대결 구도가 격화되고 '통일 세대'로 일컬어지는 젊은 세대의 무관심과 대북 혐오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와 상당수 언론이 대북 공포심과 혐오감을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 흔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통일을 '나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


결혼식에 참석할 하객들도 각기 속내가 다르다. 남북한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동북아라는 동네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아주 중요한 현상 변경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일을 향한 남북한의 구심력이 강해질수록 주변 4강이 당기는 원심력도 강해진다. 통일코리아가 자기 편에 서면 좋고, 최소한 상대방에 서지 않기를 바라고 때문이다.

그럼 통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통일을 결과의 관점보다는 '과정으로서의 통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두 가지 관점이 중요하다. 하나는 '시간의 중요성은 물리적인 길이가 아니라 화학적인 작용'에 있다는 것이다. 같은 시간이라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미래 세대를 믿고 우리가 할 바를 하자는 것이다. 기성세대가 통일 밑돌을 하나하나 깔다보면 청소년이나 그 이후 세대는 보다 차원이 높은 고민과 실천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걸 관통하는 관점은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다.

과정은 크게 네 가지 맥락이 있다. 첫째는 남북한의 교류협력과 평화공존 증진이다. 제대로 연애해보자는 것이다. 둘째는 한국 내부의 문제 해결이다. 한국의 행복지수가 주요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를 보이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관용의 문화 형성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불행한데 북한이라는 가난한 상대를 가족으로 맞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다.

셋째는 북한 문제의 해결이다. 점진적으로 탈군사화와 민주화 및 인권 증진을 유도하면서 이를 위한 국제적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혼 상대로 손색이 없게 해야 한다. 끝으로는 동북아 차원의 문제 해결이다. 휴전선은 남북한의 분단선이자 동북아의 세력균형선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통일과정을 동북아 다자간 평화체제 구축과 유기

적으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6자회담과 4자회담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주변 하객들이 남북한의 결혼에서 한몫 챙기겠다는 생각보다는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군사안보 문제가 한반도 문제의 핵심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기존 통일방안이 깔고 있는 기능주의적 접근은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 같다. 이에 따라 조속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융합적 관점으로 풀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다. 민간 교류와 경제협력을 이들 사안과 기계적으로 연계시키지 않으면서도 선순환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남북연합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통일지향형 평화체제' 구축이 긴요한 것이다. 남북한이 연애하고 결혼하면서 서로를 죽이고도 남을 무기를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1) 2014년 3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구상 연설문'에서 "한반도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정벌을 무너뜨려야 한다"면서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Agenda for Humanity) ▲남북한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공동 구축(Agenda for Co-prosperity)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Agenda for Integration) 등을 북한 당국에 제안했다.

하나되어야 할 평화의 땅,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 1) 평화통일을 남의 일로 미루고, 잊고 살았던 무관심과 망각으로 살아온 우리를 용서해주시기를
- 2) 계층, 계파 간의 갈등과 정쟁으로 균열되어 있는 남한 안에 평화의 물꼬가 트이도록
- 3) 전쟁과 폭력 없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의 비핵화(탈핵, 핵무기를 위해
- 4) 폭력과 굶주림에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인도적 지원이 재개되고, 자유로운 남북교류가 이루어지도록
- 5) YWCA와 각자가 평화통일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되도록

YWCA는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울, 워싱턴, 평양을 잇는 평화의 기도회

한반도 화해와 통일을 위한 평화행진과 기도회

지난 7월 26일 워싱턴 한복판에서 한반도 평화조약을 촉구하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 한반도 지도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은 어른과 아이들 3백여 명이 백악관 앞까지의 직선 도로 1.2km를 행진하며, 미국 정부를 향해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미국연합감리교회(UMC)와 세계교회협의회(WCC),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1박2일 일정으로 개최한 '한반도 화해와 통일을 위한 평화행진과 기도회'에 한국YWCA연합회 한미미 실행위원이 참가자로 함께 했다. 행진 참가자들은 백악관까지 행진한 뒤 라파예트 공원에서 구호를 외치고 통일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담아 기도를 드렸다.

앞서 25일에는 '에큐메니칼 라운드테이블'(Ecumenical Roundtable)에서 크리스틴 안(한국정책연구소)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와 군사적인 압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NCCK 화해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노정선 교수가 '한반도 평화조약의 체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저녁에 열린 한반도 평화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앞으로 교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해 깊은 논의를 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통일을 위한

8.15 평화통일 남북교회 공동예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2011년 남북공동기도회 이후 3년 만에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함께 '8.15 평화통일 남북교회 공동예배'를 드렸다. NCCK는 회원교단, 회원기관, 여성대표, 청년대표를 포함한 19명의 대표단을 구성해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일정으로 평양에 방문했고, 한국YWCA연합회 차경애 회장이 참가자로 함께 했다.

8월 15일 공동예배를 드리기 위해 1988년 북한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세워진 교회인 평양 봉수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뒤 남북교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8.15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문'을 양측 여성대표인 이은선 교수(세종대)와 김혜숙 목사(조그런)가 함께 낭독했다. 봉수교회 성가대의 찬양과 교회협 대표단의 찬양이 있었고, 이후 조현정 목사(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남부원 사무총장(한국


YMCA전국연맹), 차경애 회장(한국YWCA연합회)의 축사가 있었고, 강명철 위원장의 축도로 기도회를 마쳤다. 이후 평양신학원과 김일성 주석이 12살까지 다녔다는 칠골교회를 방문했다. 한반도 평화통일은 남북의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남북교회 공동예배가 민족의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의 열매를 이룰 수 있는 귀한 교류와 협력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2014 YWCA 평화기도회와 강연회

한국YWCA연합회는 8월 12일 연합회 강당에서 'YWCA 평화기도회와 강연회'를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광복절 주간에 개최되는 기도회에서 8·15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남북이 하나됨으로 누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위해 기도하였다. '하나 되어야 할 평화의 땅,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라는 주제로, 기도로 열망하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와 염원을 담았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 예배자들이 한반도 지도 배너에 '자신의 고향, 혹은 부모님의 고향, 혹은 가고 싶은 곳'을 스티

커로 붙이도록 하여, 남과 북이 나와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내가 떠나온 땅,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를 주제로 북녘 땅을 떠난 주선에 연합회 명예연합위원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누었다. 강연자로 나선 평화네트워크의 정옥식 대표는 '남북한의 교류협력과 평화공존 증진으로 남북한의 궁극적인 비핵화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는 기도로는 2014년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문을 다같이 읽으며 마무리했다. 평화와 통일을 향한 우리의 작은 기도가 씨앗이 되어 곧 그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Column
컬럼

2014년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화해와 평화로운 통일을 염원하며 광복절 직전 주일을 공동기도주일로 지키기로 약속한지 벌써 25년째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남북/북남 교회가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의 언약이며, 사랑의 맹세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온전한 해방을 이루지 못한 채 갈등과 대립, 증오와 적대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길이신 주님!

우리 민족이 분단 때문에 겪는 고통과 아픔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바쳐 이루어낸 화해와 평화의 길이 가로 막히고 있습니다. 통일을 원치 않는 자들에 의해 분단의 장벽이 다시 높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개성으로 통하는 경계협력의 문은 위축되었고, 금강산으로 이어지던 화해의 길도 언제 다시 개설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늘길, 뱃길 그리고 철길이 다 막혀 버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현실의 악몽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불의한 자들에 맞서며 평화통일의 길을 다시 열어가게 하소서.

진리이신 주님!

기나간 고통의 현실을 돌아볼 때,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서로 신뢰를 기초로 군사적, 정치적 빚장을 열어가는 것이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진실한 방법임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렘 2:14). 부활하신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들어진 휴전협정을 하루 속히 폐기하고, 평화조약을 통해 전

쟁이 종식되게 하소서. 힘과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불의와 어둠의 세력을 깨치고, 우리 모두 섬김과 나눔, 사랑과 진리의 길을 가게 하소서.

생명이신 주님!

우리는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밝히는 등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강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약탈과 지배와 죽음의 군사문화를 종식시키고, 사랑을 통한 생명의 역사를 세우게 하소서. 불의한 지배자들을 돌이켜 힘없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위협하고 생명을 빼앗는 것을 참회하게 하시고, 착취한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되돌려 주고 정의를 행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남과 북,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고 기도하며, 평화의 사도로 부르시는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2013년, 부산에서 열린 WCC 총회를 통해 세계 345개 교회와 5억 6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민족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행동할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남북/북남의 교회로 하여금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다시 힘을 합쳐 함께 기도하며 평화통일을 위해 일하게 하소서. 멀지 않은 그 날, 바로 이 땅에서 제2의 해방인 통일의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사랑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4년 8월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조선그리스도교련맹

- 탈핵 _ 고준위(高準位) 핵폐기물 | 김익중
- 여성 _ 막장 드라마 그만 보고 싶다 | 이경순
- 청년 _ 욕심 없는 평화 세상을 꿈꾸며 | 권승준

10만년 동안 핵폐기장 2천개 필요

글 | 김익중 (동국대 교수, 경주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

- 제 1 편 _ 후쿠시마 핵사고의 영향
- 제 2 편 _ 핵사고의 원인
- 제 3 편 _ 원자력은 사양산업이다
- 제 4 편 _ 원자력을 대신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 제 5 편 _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
- 제 6 편 _ 한국인의 피폭경로
- 제 7 편 _ 고준위(高準位) 핵폐기물
- 제 8 편 _ 경주 방폐장
- 제 9 편 _ 핵재처리
- 제 10 편 _ 핵발전의 대안

우리나라에는 총 23개의 핵발전소가 있고, 원전 하나당 약 100톤의 핵연료가 들어있다. 원자로 안에 핵연료가 장전되면 경수로의 경우에는 약 4년 동안 물을 끓여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데, 4년 후에는 이 핵연료가 원자로 밖으로 나오게 된다. 경주에 있는 중수로의 경우는 경수로보다 핵연료의 농도는 낮고 체적은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약 700톤의 고준위(高準位) 핵폐기물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 고준위 핵폐기물을 ‘사용후핵연료’, 혹은 ‘사용후연료’라고 부르기를 좋아하는데, 고준위 핵폐기물은 그냥 쓰레기이지만 이것을 재처리 할 가능성을 남겨두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핵재처리에 관해서는 다음에 설명할 계획이다.) 한국의 핵산업계가 고준위 핵폐기물을 ‘사용후연료’라고 부르는 이유는 정확하지 않지만 본능적으로 ‘핵’자를 빼고 싶어하는 무의식적 노력이 아닌가 짐작된다. 그러나 이 ‘사용후연료’라는 용어는 연탄재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중저준위 핵폐기물은 통상 300년 동안 보관하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고준위 핵폐기물은 최소 10만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고준위 핵폐기물에는 플루토늄 등 반감기가 수만년에 이르는 핵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핵발전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이다. 10만년 동안 핵쓰레기를 보관할 기술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기술로는 약 50년 정도 보관할 수 있는 고준위 핵폐기장을 지을 수 있다고 하

니, 기술개발이 특별히 진행되지 않는 한 50년에 한 개씩 2,000개의 고준위 핵폐기장을 만들어야 10만년이 지나갈 것이다. 한반도에 2,000개의 고준위 핵폐기장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이 10만년 동안 방사능 누출사고는 몇 번이나 일어날 것인지 상상해보면 더 기가 막힌다. 만년에 한 번씩 일어나면 10번의 방사능 누출사고가 일어날 것이고, 천년에 한 번이면 100번의 누출사고가 일어날 것이다. 100년에 한번이면 약 1,000번의 방사능 누출사고가 일어나게 된다.

60여 년 전, 세계에서 원전이 처음 시작될 당시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과학이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으니 앞으로 50년 후에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기술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인류는 그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60년 전 과학자들의 무책임성은 앞으로 10만년 동안 비난 받아 마땅할 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결론을 내보자는 취지로 보인다. 이 위원회는 그래서 고준위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즉, 재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처분을 할 것인지, 원칙을 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재처리 기술도 없고, 직접 처분할

기술도 없다. 그러니 이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밖에 남지 않게 된다. 현재 기술로 가능한 50년짜리 중간저장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 위원회는 우선 중간저장소를 발전소 부지 내에 지을 것인지, 아니면 발전소와 상관없는 다른 곳을 선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만일 발전소 내가 아닌 다른 곳에 건설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 위원회를 ‘고준위 핵폐기물 중간저장소 부지선정위원회’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핵정책 전반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옳다. 사용후핵연료의 처분 방식 뿐 아니라 최종 처분해야 할 양을 결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 고준위 핵폐기장을 만들었다 썸 치더라도 이후에 고준위 핵폐기물이 더 나온다면 이 어려운 고준위 폐기장을 또 다시 건설해야 한다. 이례서는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가 없는 일 아닌가? 따라서 공론화위원회가 논의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앞으로 얼마만큼의 고준위 핵폐기물을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나라에서 발생시킬 고준위 핵폐기물의 총량이 계산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계산이 가능하려면 탈핵 로드맵이 완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 공론화위원회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한국의 탈핵 로드맵을 작성하는 일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어떤 사람이 여행에서 돌아와 보니 집이 온통 물바다가 되었다. 왜 이렇게 되었나 살펴봤더니 수도꼭지가 열려 있었다. 이 사람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흘러나온 물을 치우는 일일까, 아니면 수도꼭지를 잠그는 일일까? 상식이 있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수도꼭지를 먼저 잠글 것이다.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도 마찬가지로 접근해야 한다. 핵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면서 고준위 핵폐기장을 만드는 일은 매우 현명치 못한 처사이다. 먼저 핵폐기물을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그 후에 폐기물 처리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옳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한국의 탈핵 로드맵을 구상하는 것이지, 생산된 핵폐기물 처리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우리 민족이 이 핵폐기물 문제를 결국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 

관련 영화 소개



영원한 봉인 INTO ETERNITY (2010)

● **줄거리**
영화는 지하 500m까지 파고 내려가서 세계 최초로 핵폐기물을 기반암으로 밀폐한 공간에 넣으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는 핀란드의 온칼로(Onkalo, 핀란드어로 ‘숨겨진 장소’라는 뜻)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온칼로를 만드는 이들은 이 곳을 발견한 미래 세대가 방사능 측정장치를 갖고 있어 위험을 감지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추측한다. 그리고 세계의 갖가지 언어로 경고문을 새놓는다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모면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매일매일 세계 도처에서 엄청난 양의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이 별도의 저장소에 저장되고 있다. 자연재해, 인재, 사회 변동에 의해 언제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취약한 곳에 있는 이 시설들은 한 번 가득 차면 영원히 열 수 없도록 봉인하게 된다. 하지만 모두의 바람과는 달리, 영원히 그 폐기물들을 그곳에 묻어둘 수 있을까? (2012 제9회 EBS 국제다큐영화제 출품작)

● **명대사**
“우리 모두의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원자력을 지지하든 안하든 상관없죠.”
“에너지의 고갈은 전세계를 불안정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개요: 다큐멘터리 /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75분) 감독: 마이클 매드슨

TV 연속극 - 악녀들의 대행진 '막장 드라마 그만 보고 싶다'

글 | 이경순 (전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연합회 홍보출판위원)

요즘처럼 세상사가 어지러울수록, 사는 게 팍팍할수록 사람들은 지치고 다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쓰다듬어줄 위안거리를 찾게 된다.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행이나 특별한 취미활동을 즐길 여유가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까이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텔레비전에 그 몫을 기대는 게 보통이다. 특히 우리네 울고 웃는 인간사를 그리는 드라마야말로 그 역할을 기대하기에 안성맞춤이라 하겠다. '재미있는 드라마 한 편만 있어도 살맛 난다'거나, '재미 있게 보던 드라마가 끝났으니 무슨 재미로 살까' 같은 이야기도 그래서 나온다.

그러나 요즘 방영 되고 있는 텔레비전 드라마들은 이 같은 우리의 기대를 배반하기 일쑤다. 드라마를 보면서 지금 내가 안고 있는 골치 아픈 문제를 잊고 상처 받은 마음을 추스르려던 기대감은 드라마가 진행 되면서 쉽게 무너져 내린다. 아무리 '욕 하면서 보는 게 막장 드라마' 라지만 요즘 방영 중인 드라마의 등장인물과 그 스토리 전개를 보면 상식을 벗어난 설정에 위안은 커녕 더욱 마음 상하기 십상이다.

요즘 가장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는 '왔다! 장보리'를 예로 들어보자.

전통 한복의 본산 '비슬재'의 작은 며느리 은비(김혜옥)는 큰동서의 침선장 자리를 빼앗기 위해 악랄하고 비열한 짓을 서슴치 않는다. 심지어 시숙을 차로 치고도 그대로 도망쳐 죽게 만들고 그 와중에 어린 딸을 길에 방치해 잃어버렸을 뿐더러, 다 커서 돌아온 딸이 가난하게 자라 무식하다고 선뜻 받아들이지기를 거부한다.

충격으로 자신이 누군지 기억을 잃은 은비(오연서)를 데려다 자신의 국밥집 잔심부름꾼 보리로 기른 양모(황영희)는 신분상승 욕구에 불타는 친딸 민정(이유리)의 성공을 위해 거짓말과 속임수로 양딸 보리의 희생을 강요하고 심지어는 민정이 헤어진 애인과 사이에 낳은 아기를 보리에게 자식으로 키우도록 떠맡긴다. 어려서부터 비천한 자신의 신분을 바꾸고 싶은 비뚤어진 욕망에 사로잡힌 민정은 같이 자란 보리가 '비슬재'



MBC 드라마 왔다! 장보리 (출처 : MBC 홈페이지)


의 손녀 은비라는 것을 알면서도 '비슬재'의 양녀가 되어 은비의 자리를 빼앗는다. 사귀던 대학 선배와의 사이에 아기가 낳지만 그를 버리고 온갖 계락을 총동원하여 부잣집 며느리가 되는데, 과거가 들통 나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보리가 키운 자신의 딸 비단이를 유괴해서 감추고, 자기 양모인 은비 엄마와 시어머니에게까지 약점을 들이대며 협박을 일삼는다.

위에서 장황하게 살펴보았듯 막장 드라마의 필수 요소라는 출생의 비밀은 물론이요, 두 주인공의 엇바뀐 운명과 이로 인한 갈등이 이미 밝혀질대로 다 밝혀졌는데도 은비 엄마와 민정 두 악녀의 악행은 좀체 꼬리를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민정이란 캐릭터는 범죄심리학에서 말하는 사이코 패스가 아니라면 이토록 끊임없는 거짓말과 사기로 인륜을 저버린 악행을 저지를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정도로 극심한 '악녀'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드라마 '빠꾸기 둥지'는 어떨까? 아기를 못 낳는 백연희(장서희)는 시어머니의 강요로 대리모가 낳은 아이를 받아들이며 열심히 키운다. 그러나 대리모 이화영(이채영)은 과거에 백연희가 애인 사이였던 자기 오빠를 버리고 부잣집으로 시집 가서 오빠를 자살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자기 집안이 몰락했다는데 앙심을 품고 일부러 대리모를 차칭한다. (그러나 대리모로 낳은 아이는 헤어진 자신의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여서 배신 당한 남자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여주인공의 행복을 짓밟기 위해 죽은 오빠와의 과거를 폭로해 집에서 쫓겨나게 하고 아이를 빌미로 남편에게 접근하여 가정이 깨지게 만들어 그 충격으로 백연희 어머니가 죽은 것으로도 모자라 백연희 아버지의 회사까지 빼앗는다.

어린 아이들은 집에서 쫓겨난 '엄마'와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나 자신이 엄마라고 우기는 대리모 사이에서 극도의 혼란을 겪으며 정서불안과 몽유병 증세까지 보이지만, 탐욕에 사로잡힌 이화영은 욕설과 폭력으로 백연희와의 양육권 소송에 유리한 증언을 아들에게 강요한다. 이런 와중에 이 모든 문제의 시초를 만든 당사자인 시어머니는 내쫓은 며느리 빈 자리에 밀고 들어온 대리모가 못 마땅해서 아들에게 새로 결혼하라고 강요하는 역지를 부리고 있는 중이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두고 '안방 극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나이나 취향에 따라 관객이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영화나 연극과는 달리, 시청자가 정으로 직접 전달 되는 텔레비전의 특성을 상기 시키는 뜻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탈을 쓴 악녀 캐릭터가 난무하는 막장 드라마들이 가족 시간대인 저녁과 주말에 버젓이 방영 되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송사의 횡포라 하겠다. 시청률을 앞세운 막장 드라마 이젠 정말 그만 보고 싶다! 



KBS 드라마 빠꾸기 둥지 (출처 : KBS 홈페이지)

욕심 없는 평화 세상을 꿈꾸며

글 | 권승준 (인천YWCA 대학Y)

최근 들어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다. 지구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곳곳에서 많은 분쟁과 갈등이 극에 다다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1700명에 육박하는 사상자를 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가장 심각해 보인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대한민국에서도 남북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이번 해에만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15번이나 발사함으로써 민족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까지도 인류의 평화는 끊임없이 위협당하고 있으며 우리가 과연 안전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들게 만든다. 그런데 과연 인류가 평화로운 세상에 살았던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창세 이후 인류의 출현이 있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는 분쟁의 역사라 할 수 있다. 갈등과 반목의 역사로 요약할 수 있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기 위해 피를 흘려왔으며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 서로 물고 뜯는 싸움을 지속해왔다. 인류가 더 이상 과거의 미개했던 인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싸움은 계속 되어왔는데, 이런 현실 속에서 나는 문득 지구촌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참 부끄러워진다. 말만 하나의 마을이지 현재까지도 세계는 서로 반목하는 중에 있으니 말이다. 작금의 세계정세는 평화에 대해 다시 한 번 고찰해보고 진정한 평화에 의미에 대해 되물게 만든다. 평화란 무엇일까?

우선 평화에 대한 정의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평온하고 화목함',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어 평온함' 등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넓은 범위로서는 화합, 안정 등의 단어도 평화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평화로운 세상은 무엇일까? 평화로운 세상에 대해 떠올려 보면 나는 너무나도 평범하면서도 단순한 것들이 떠오른다. 전쟁 없는 세상, 모

두가 굶어죽지 않는 세상. 그리고 좀 더 좁은 의미의 사회 안에서의 평화로운 세상 등 평화에 대한 이러한 의견은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평화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는 참 어려워한다. 너무도 답이 뻔하게 나와 있는 명제지만 인류는 여전히 다툼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나는 그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탐욕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은 살인, 방화 심지어는 전쟁도 불사한다. 그리고 말로만 평화를 원한다고 부르짖는다. 전쟁을 멈추자고 하면서도 그 원인이 되는 욕심은 멈추려 하지 않는다. 그러한 욕심의 결과는 너무나도 처참한 것이다.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다. "탐욕은 일체를 얻고자 욕심내어서 도리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아야 할 이 지구에서 사람들은 나눠 쓰는 법을 모르는 것 같다. 자신의 손아귀에 무언가를 쥐려고만 한다. 아니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조차도 가질려고만 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기인한 내가 만들고 싶은 평화세상은 한 마디로 '탐욕을 버리는 세상'이다. 버려야 할 것은 비단 자신에게 무가치한 것뿐만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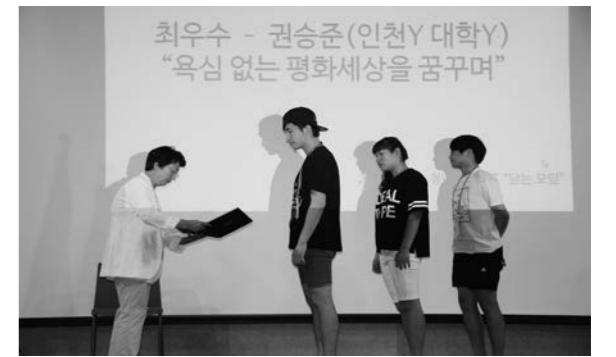
사람들은 버리는 행위를 필요없는 것을 버리는 행위로만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평화를 위해 '버리는 행위'는 나에게 무가치한 것을 버리는 행위가 아닌 내가 인간됨을 써서 붙잡으려 하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높은 가치를 위해 나에게 소중한 무엇인가를 기꺼이 내어놓는 능동적인 행위이다. 말은 참 쉽다. 어디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을 쉽사리 놓을 수 있을까? 나에게 소중

한 무엇인가를 마치 내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훌훌 털어버릴 수 있을까? '내 집', '내 물건', '내 시간'과 같이 내 것에 조금 더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우리의 문화 속에선 그것이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의미부여가 도리어 내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법정스님은 '무소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어 있는 것.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얽혀 있다는 뜻이다." 내가 비록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법정스님의 말씀은 사람의 탐욕과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 명확히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 이처럼 평화는 우리가 무엇인가에 얽매어 있어서 이리도 더디게 찾아오는 것일 수도 있다.

내가 '탐욕을 버리는 세상'을 꿈꾸게 된 결정적 계기는 YWCA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부터이다. 잠시 내 얘기를 해보자면, 나는 작년부터 인천Y에서 대학Y로 활동하기 시작하여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리고 그 활동 속에서 '버림'의 가치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다. 특히 대표적인 계기가 작년에 참여했던 '몽골-인천 희망의 숲 프로젝트'이다. 내가 사는 지역 인천에서는 몽골과 제휴를 맺고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위해 매년 몽골로 식림활동을 하러간다. 나는 대학Y회원으로 운 좋게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었는데, 그전까지 몽골에 대해 많이 들어봤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몽골이 어떤 곳일지 매우 궁금했다. 부푼 꿈을 안고 몽골로 가 몽골인들과 함께 식림활동을 하며 그들을 옆에서 지켜본 결과, 내가 생각한 것은 '이들의 기개와 자존심이 참으로 높다'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몽골에서의 마지막 날 저녁에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몽골에서 식림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푸른 아시아' 직원에게 "몽골인들은 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존심과 그 기개가 참 높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직원 분은 펄쩍 뛰면서 내게 말하셨다. "그게 무슨 소리세요, 몽골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들이 못 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인들이 몽골에 와서 그들에게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생각해 보니 몽골 사람들은 얼마나 여유로우며 본인들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



는가. 광활한 대륙에서 유유자적하며 욕심 내지 않는 모습이 하나라도 더 가지려 애쓰는 우리와 크게 대비되었다. 그들은 절대 가축을 과하게 소유하려 하지 않으며 서로 분쟁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가축이 풀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상대방을 배려한다. 그 때 나는 비록 몽골 사람들이 우리보다 GDP나 GNP 같은 경제적 지표가 뒤쳐질진 몰라도 마음만큼은 우리보다 부유할거라는 생각을 했다. 나는 그들의 외관만 보고 그릇된 판단을 했던 것이다. 평화는 결코 거창한 무엇인가를 해야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욕심을 버려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몽골인들처럼 평화로움을 누릴 수 있다.

평화는 작은 욕심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실천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노력들이 모여 내가 사는 지역을 평화롭게 하고 나아가 나라와 세계를 평화롭게 만드는 일을 할 것이다. 나도 '버림'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지속적인 YWCA 활동을 통해 평화에 대한 가치를 발견 중에 있다. 비록 현실은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잦은 마찰일지라도 내 안에 욕심을 버리려는 시도 그 자체가 평화와 직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김구 선생님이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서 "세계 인류가 내오 내오 없이 한 집이 되어 사는 것은 좋은 일이고, 인류의 최고요 최후인 희망이요 이상이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사해동포(四海同胞)의 크고 아름다운 목표를 향하여 위대한 꿈을 꾸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쓰는 지구촌이란 용어가 지구가 단순히 하나의 생활권이 되어서 쓰는 말이 아닌, 하나의 마을로서 진정 평화로운 지구를 나타내는 말로 쓰이길 염원해 본다. 

거룩한 선택

글 | 이천진 목사 (한양대학교회 담임목사, 연합회 전문자문위원)

거룩한 독서는 라틴어로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이다.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온 그리스도교의 영성훈련방법이다.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는 훈련이다. 12세기의 수도자인 귀고(Guigo)가 정리한 렉시오 디비나의 4단계는 읽기(Lectio), 묵상하기(Meditatio), 기도하기(Oratio), 관상하기(Contemplatio)이다.

읽기는 성서를 작은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묵상하기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마음에 와 닿는 단어를 붙잡습니다.

기도하기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단계입니다. 참회의 기도, 간구의 기도, 감사의 기도, 찬미의 기도를 드립니다.

관상하기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자리로 가는 단계입니다. '존재하는 어떤 것에 대한 사랑스런 임재'를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읽기(Lectio)

마태복음 13장 44절-52절

44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47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48 그물에 가득하매 물 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49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50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51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52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나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묵상 (Meditatio)

1 천국은 밭에 감추인 무엇과 같습니까?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44절)

2 천국은 무엇을 구하는 장사와 같습니까? (45절)

3 그것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46절)

4 천국은 물고기를 모는 무엇과 같습니까? (47절)

5 물고기 중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48절)

6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누구를 갈라낼 니까? (49절)

7 갈라낸 사람은 어디에 던져져서 울며 이를 갉니까? (50절)

기도 (Oratio) / 묵상 나눔

가장 중요한 하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를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천국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비유는 보화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밭에 묻혀 있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밭이 은행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보화를 땅 속에 묻어서 보관했습니다. 주인이 유언을 하지 못하고 죽거나,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외국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경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누군가에 의



그리스도 (그림: 김우희)

해 보화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때 보화가 '땅 주인의 것이냐, 발견한 사람의 것이냐'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들어 올림으로 소유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그런데 종이 발견한 경우에는 발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화를 캐지 않습니다.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있는 밭을 삽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보화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 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화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천국은 은총입니다. 은총은 아무에게나 다 주어지지 않습니다.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희생이 있어야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소유를 다 파는 희생이 있어야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아를 전부 내려놓는 희생이 있어야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유는 진주 비유입니다. 당시에 진주는 귀했습니다. 유대인 상인들은 페르시아, 인도까지 진주를 찾아다녔습니다. 진주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진주를 구하기 위해 다녔습니다. 그는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습니다. 여기에서 진주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에

게 주어집니다. 소유를 다 파는 희생을 하는 사람,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셋째 비유는 그물 비유입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20여 종의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그물은 바다에서 각종 물고기를 모읍니다. 물고기가 가득 차면, 물 가로 끌어냅니다.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버립니다. 레위기 11장 9절-11절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그물에는 각종 물고기가 다 들어옵니다. 물가에 앉아서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구별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구별합니다. 그냥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상 끝, 즉 종말에도 천사들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합니다. 악인을 풀무 불에 넣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핵심 질문

- ▶ **핵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보화입니까?**
- ▶ **핵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주입니까?**
- ▶ **핵은 천국을 이루는 좋은 것입니까,**
- ▶ **천국을 훼손하는 못된 것입니까?**

핵과 그리스도교 신앙은 양립할 수 없다

장윤재 교수는 '핵과 그리스도교 신앙은 양립할 수 없다'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강원돈은 이러한 핵체제를 보면서 욕기 41,1-34에 등장하는 '레비아탄'을 떠올렸다. 배현주는 이 땅 곳곳에 시한폭탄처럼 박힌 핵발전소들을 보면서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마르 13,14)을 연상했다. 실로 핵은 창조주 하느님을 배반하는 것, 생명의 하느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마성적으로 악용하는 죄악이다. 그것은 또한 이 세상을 힘을 통해 다스리고자 하는 집권자들 앞에서 섬김과 나눔과 사랑의 길을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핵에 의한 평화(Pax Nucleus)는 그리스도의 평화(Pax Christi)의 길이 아니다. 나아가

그것은 스스로 죽음에 대한 사랑(necrophilia)에 빠져들어 정의와 평화의 열매를 맺어주는 생명의 영을 거부하는 것이다. 결국 핵은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모반이며, 자신과 지구 전 생명 공동체의 진정한 안보, 즉 생명안보를 위협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자멸의 길인 것이다.”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는 구별해야 합니다. 천국을 위해 좋은 것과 못된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천국을 훼손하는 핵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앙을 함께 품을 수 없습니다.




체르노빌의 목걸이라고 하여 갑상선암 환자가 목에 붕대를 두른 모습

인류의 가방

리처드 라이더(Richard J. Leider)의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2명의 중년 탐험가 일행이 12,000km의 행군 끝에 마사이족 추장 코이에를 만났습니다. 코이에는 창 한 자루와 가축을 모는 막대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일행의 리더인 덕은 최신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걸은 화려했습니다. 안에는 여행에 필요한 잡동사니들이 빠짐없이 들어 있었습니다. 덕은 코이에 앞에서 물건들을 꺼내 놓으며 자랑을 했습니다. 물건들을 한참 들여다보던 코이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이 물음에 덕은 자신이 짊어지고 왔던 가방을 풀고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물건만으로 다시 가방을 꾸리게 됩니다. 가벼워진 가방으로 그는 전보다 훨씬 더 즐겁게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3장 “인생에는 중요한 것이 많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더 많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행이다. 그다지 길지도 않을 뿐더러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이 여행이 우리가 가진 전부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여행 가방이 짓누르는 무게에서

달린다. 황무지로 떠나는 여행을 상상해 보자. 짐을 어떻게 꾸려야 할까? 많지도 적지도 않은 짐이란 과연 어느 정도일까? 낯선 곳을 탐험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물어야 한다. ‘내가 꼭 가져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행이 중반에 이르면 사람들은 종종 너무 많은 짐 때문에 지쳐버리고 만다. 특히 삶의 중턱쯤에 접어들면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의 심정이 되고 만다. 책임감과 집착에 억눌려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어진다. 이른바 ‘중년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다. 아프리카를 탐험할 때는 다들 무엇을 갖고 가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무엇을 두고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문이 막혀버린다. 한 가지 요령이 있다면 가져갈 것과 두고 갈 것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 필요한 것은 모두 가져간 다음 아낌없이 몽땅 써버리는 것이다.”(68쪽) 인류는 가방을 풀고 다시 싸야 합니다. 인류는 가방을 정돈해야 합니다. 인류는 가방에서 천국을 훼손하는 핵을 버려야 합니다. 

관상(Contemplatio) / 실천(Praxio)

1) 나의 인생의 가방에서 가장 중요한 보화는 무엇입니까?

2) 나에게 이익이 되지만, 천국을 훼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3) 탈핵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지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자

2014년 제2차 사무총장협의회가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대전유성호텔과 세종시 일대에서 전국 회원Y 사무총장들과 연합회 실무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자치시대의 YWCA 지역운동성 강화’를 주제로 열렸다.

첫 순서인 여는 예배에서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는 말씀으로 묵상하며 급격한 지구 생태 위기 가운데 개인과 Y의 영성을 회복하여 평화와 화합, 생명이 함께 숨쉬는 정의 평화생명운동의 일꾼으로 거듭날 것을 기도했다.

이어 진행된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인 하승수 변호사의 ‘자치운동의 의미와 방향’이라는 주제 강연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사회 전반을 돌아보며 과연 한국시민단체와 시민운동이 한국사회를 바람직하게 변화시켜 왔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에서의 변화없이 국가적인 변화의 틀이 있어도 지속되지 못한다며 분권화된 사회에서 지방정부의 노력과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로 실제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지역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발의운동, 생활 자치를 통해 희망의 모델을 만들어 가야함을 강조했다.

지역보고 ‘안산 희망을 말하다’에서는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한 안산시민연대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며 치유와 공동체 성장 네트워크로 활동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이어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중요성과 잘못 알려진 세월호 특별법의 오해에 대해 바로잡으며, 세월호 이후의 안산 지역의 변화와 과제에 대해 다양한 단체와 기관의 협력 통해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 안전도시에 대한 새로운 도시의 모습을 제시했다.


‘지역운동과 나라는 주제로 7인 7색의 토크 콘서트 시간에서는 원주Y 권순형, 대구Y 박선, 동해Y 우미강, 대전Y 유덕순, 수원Y 이귀선, 전주Y 이명자, 포항Y 이은숙 사무



총장의 인생 경험과 비전을 나누며 Y와 함께 꿈꾸는 세상을 그려보았다.

둘째 날 오전에는 ‘지역자치의 현장을 가다’라는 주제로 지역 분권의 상징 도시이며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인 구분산책으로 생긴 계획도시인 세종시의 ‘세종시민투쟁기록관’을 찾아 세종시가 출범하기까지 헌신한 분들의 이야기, 투쟁과정에서의 고통과 애환 등을 다룬 자료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저녁에는 YWCA 지역운동 사례 나눔 시간인 ‘YWCA 지역운동을 만들다’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탈핵운동에는 ‘교회와 지역이 함께하는 탈핵운동’인 부산Y와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 운동’을 소개한 부천Y, 둘째 성인지 운동으로는 안양Y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경기도에 넷(Net)을 만들다’가,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의 예로 청주Y의 ‘올리를 통해 본 사회적경제의 가능성과 한계’와 순천Y의 ‘사회적기업 ‘해피락’, 과연 해피한가?’가 지역의 사례로 공유되었다.

마지막 날에는 사무총장 협의회의 결단 시간으로 연합회 최만자 위원은 ‘생명 위기 시대의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세월호 이후의 삶을 돌아보며 성서에서 말하듯 늘 깨어있으면서 ‘공감과 연대’의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예수가 하나님나라 운동을 전개한 ‘본래적 충동’을 발견하여 창조적인 자생능력을 기르고 희망과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능력을 기르자고 했다. 마지막 순서인 안전 토의에서는 9월 18일 열리는 2014년 YWCA 정책협의회의 목적을 공유하고 참가자 등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정책협의회를 통해 한국YWCA 정체성을 확인하고 2015년 전국 중점운동을 협의하며 책임있는 시민운동체로서 회원YWCA의 활동을 결단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글 | 편집실

사람과 삶이 만나는 새로운 에너지의 장



2014년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대구YWCA와 대구 인 터불고 호텔 엑스코에서 1박 2일동안 2014 YWCA복지관 및 자활·노인센터 직원연수가 진행됐다. 회원YWCA복지관 직원들의 네트워킹 및 습과 충전을 통해, 지역사회 현장에서 YWCA정신과 복지운동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연수로 구성됐다. 총 9개 회원Y소속 15개 기관 직원 및 연합회 실무자 등 총 95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덥다는 대구에서 연수를 진행한다는 소식에 모두가 긴장하는 마음으로 모였지만 아침부터 비가 내리다가 차츰 개기 시작해 참가자들이 감사한 마음을 안고 속속 대구로 도착했다.

먼저 대구YWCA 강당으로 모여 여는 예배로 시작하며, 조원들과 어색한 첫 인사를 나누었다. 다른 지역의 복지관이나 자활센터에서 온 실무자들과 함께 교류하며 직원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프로그램인 공동체 훈련이 시작됐다. 찾아가는 연희극단 너영나영 고봉이 대표가 진행을 맡아 천천히 걷기도 하고 빨리 달리기도 하다가, 두 명씩 혹은 열 명씩 짝을 짓기도 하고, 몸으로 단어를 표현해 보는 활동이 연속해 진행됐다. 모두가 진행자의 멘트에 경청하며 공동체 훈련에 집중했고, 고 대표는 서로 몸을 부딪히는 활동 속에 나를 표현하고 남을 이해하는 과정이 숨어있다고 활동의 목적을 밝혔고, 참석자들은 뜻 깊은 활동 시간을 즐기며 친밀도를 높였다.

오후 4시부터 8시 30분까지 조별로 대구의 근대문화골목을 돌아보는 골목투어와 저녁식사 시간이 이어졌다. 코스별로 가이드를 만나 두 시간 남짓한 시간동안 대구 제일 교회를 시작으로 선교사들의 숙소, 선교사들의 모지인 지혜의 정원, 대구 광혜원 시절 의료 기구들이 보관되어 있는 의료 박물관, 여학생들이 몰래 항일운동을 하러 올라가

던 3.1운동길을 지나 계산동성당과 이상화 고택을 둘러보는 것으로 골목투어를 마무리했다.

저녁 시간에는 YWCA의 정체성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기관별 페차쿠차 100초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됐다. 페차쿠차는 한 슬라이드당 발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자동적으로 피피티 슬라이드가 넘어가는 발표 방식이다. 시간 제한이 있었지만 발표자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유쾌하고 진솔한 발표를 해나갔고 참가자들의 환호와 격려의 찬사와 박수가 쏟아졌다.

둘째날은 YWCA 중점운동인 탈핵운동의 이해와 실천을 위한 역량강화 시간을 위해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의 '한국 탈핵운동의 의의와 그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탈핵 강의를 처음 들은 참가자들부터 '탈핵'에 대해 이름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왜 필요한지 실감하지 못했던 참가자들까지 이들은 강의 후 조별 워크숍을 통해 '생활 속 탈핵 실천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나가며 각자 속한 복지관과 센터에서 어떻게 하면 탈핵 운동에 동참할 수 있을지를 심도 있게 고민하며 연수를 마쳤다.

이번 연수 기간에는 특별히 대구YWCA 노인복지센터와 대구달서 지역자활센터 직원들이 실무진으로 활약해 프로그램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돕고 지역주민만이 알 수 있는 대구의 맛과 멋을 소개하는 데 앞장섰다. 참가자들은 연수 후 평가를 통해 직원 간의 네트워킹을 기대했었는데 실제로 도움을 많이 받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갈 수 있어 이번 직원연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람과 삶이 만나는 복지관과 자활·노인센터의 직원들이 하반기에도 Y활동가로서 중점운동인 탈핵운동을 실천하며 긍정의 에너지를 마음껏 펼칠길 기대해본다. 글 | 편집실

원수를 친구 삼는 사랑의 소나기

글 | 장미란 (연합회 실행위원)



9월 2일과 3일에 북녘 땅을 바라보는 철원에서 '북한어린이돕기사업단' 워크숍이 열렸다. 지난 7월 15일 연합회에서 열렸던 생명평화위원회 평화통일포럼에서 연사로 초청되어 오셨던 정지석 목사님의 도움이 컸다. 정 목사님은 3년 전부터 아예 철원에 거주하면서 남북 평화통일 운동에 전념할 피스메이커(peacemaker)들을 양육하는 국경선평화학교를 이끌고 계신다. 이제 분단의 역사 60년이다. 남북의 주민들 모두에게 분단 극복의 절실함과 당위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현장에서 이루어진 워크숍은 분단의 아픔을 생생히 느끼고 통일의 절실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서울에서 자동차로 두 시간을 달려 철원에 도착했다. 철원의 명소 고석정을 둘러본 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안에 있는 국경선평화학교로 가서 통일부총리와 적십자 총재를 역임하신 한완상 박사님의 강의를 들었다. 부드럽으면서도 강한 뜻을 담은 한 박사님의 강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남한은 북한보다 몇 십 배 더 잘 살게 되었고 경제 소득은 북한의 20배가 된다고 한다. 마치 형은 고대광실에 사는데 동생은 그 바로 옆에서 형편없이 어렵게 사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럴 때 둘 사이에 도저히 해결 할 수도 없고 서로 이해할 수도 없는 갈등이 일어났다고 하면 당연히 잘 사는 형이 먼저 어렵게 사는 동생을 이해해 보려고 나서야 한다. '왜 그렇게 동생이 억지를 피우는지, 무엇이 동생을 저토록 화나게 했는지'를 약자인 동생의 자리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역지사지라고 하지 않던가?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상대방의 자리에 서서 머리로 '생각'해 보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마음을 가슴으로 '느껴'보아야 한다. 그러나 크리스천이라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강자의 위치에서 약자를 돕는 것이 아

니라 아예 약자의 음식을 먹어 스스로를 약자의 체질로 바꾸어야 한다. 이사가 1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때 강자인 사자는 약자인 소를 더 이상 먹이로 보지 않게 된다. 원수를 친구 삼으면 원수는 없어진다. 우리가 북한 주민이 예측하지 못할 사랑의 소나기를 '먼지' 퍼부음으로써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먼저 밀고 들어가는 사랑의 전술은 깊은 신앙 없이는 불가능하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평화통일운동을 할 수 없다.

강연을 듣고 난 다음 워크숍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의 지도로 형상화해 보았다. 통일의식의 고양을 위한 Y안팎의 교육, 교회와 공동으로 하는 기독교 시민교육, Y내부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는 통일 전문가 키우기, 북한의 여성들 사생활, 가족생활, 육아 방식 등에 대해 공부하기, 북한 사람들과의 대화와 인적 교류 추진, 사업단의 명칭을 일방적 지원에서 상호교류적인 이름으로 바꾸는 문제, Y를 공식적인 대북 지원 단체로 등록하는 문제, 독자적인 교류의 통로를 모색해 보는 문제, 비무장지대에서 북측과 남측이 함께 여는 음악회를 기획해 보는 것, Y안에서 통일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함께 나누는 세상' '푸른 나무재단' '유진벨 재단' 등 다른 단체들의 대북 지원활동을 살펴보고 와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연구해볼 것 등등에 대해 논의했다.

헤어지기 전 마지막 시간은 윤명선 목사님의 인도로 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까지를 여러 목소리로 돌아가며 읽었다. 비온 후의 정갈한 공기 속에서 둥글게 모여앉아 기도하면서 통일을 위한 운동에 헌신하고 싶은 뭉클한 마음이 들었다. 서울을 떠나 철원에서 열린 모임은 참가자 모두에게 생생한 통일 교육이 되었다. 이곳에서 얻은 신선한 에너지를 모두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요 키우자 Y다운 리더



2014년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동안 인천 을왕리에서 고양, 광주, 대전, 부산, 서울, 안양, 평택Y 키다리 회원들이 모여 키다리 연대캠프를 열었다. 레크레이션, 물놀이를 통해 열정적으로 놀고, 워크숍과 발표를 통해 Y다운 리더십을 고민하고 직접 요리를 만들어 오감체험도 했다. 특히 2014년 상반기동안 회원Y 키다리학교에서 진행한 활동과 경험담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키다리학교의 상반기 보고와 함께 하반기 계획을 통해 키다리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함께 나눠본다.

고양Y 오수현 간사

고양Y 키다리학교는 키다리학교의 이야기를 취재하고 기록할 '키다리 기자단'을 만들었다. 4명의 키다리와 대학 생자원봉사자 1명이 함께하며, 김진이 위원(중점운동위원회, 고양신문 기자)의 재능기부로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3월 8일 오리엔테이션에서 참가한 학생들이 하고 싶은 활동들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DMZ 방문이나 전쟁기념관 등의 평화를 주제로 한 견학, 평화를 위해 노력하신 분들에 대해 배워보기, 평화 관련 UCC 만들기, 스트레스 해소 및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활동 등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5월 24일에 이한열 기념관과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해 '누구나 자유로울 수 있는 세상, 나의 생각과 행동이 중요한 세상을 함께 꿈꾸며 만들어 가자'라는 도전을 받았다.

광주Y 박송희 간사

키다리 면접을 마치고 갖는 첫 모임에서 '인권'이라는 주제로 마인드맵을 펼치며 각각 다르면서도 비슷한 관점에 신기해하면서 '청소년의 문화 지킴이'라는 주제를 선정했다. 부폰 마음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타며 참석한 키다리학교 입학식에서 처음 만난 친구들과 어색하지만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키다리학교가 무엇인지 고민해보았다. 입학식에서 1년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며 청소년의 문화 지킴이로써 '지역 청소년 축제 기획, 탐방,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현재는 청소년축제의 현장을 경험하기 위해 청소년어울림마당 체험부스를 기획하고 운영해보고 있다. 서툰 걸음마 단계를 지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대전Y 백운미 간사

올해 2년차인 대전Y 키다리학교는 작년에 비해 시야를 확장해 주변의 문제에 대한 활동목표를 고민해 보았다. 특히 키다리들이 역사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앞으로의 세대가 풀어야 할 과제라 생각되며 독도분쟁을 주제로 활동방향을 정했다. 먼저 독도에 관한 경제적, 지리적, 역사적, 국제적 인식을 알기 위한 연구모임을 했다. 그리고 독도 지킴이 실천방안을 모색하여 청소년 어울림마당의 지역 청소년 축제에 독도 퀴즈, 독도 수호대에 편지 쓰기, 독도 십자말 풀이 등의 활동으로 참여하고 봉사하면서 독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을 높이는 활동을 했다. 청소년 스스로가 청소년도 사회의 일원이라 인식을 하게 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하반기에는 좀 더 다양한 활동에 도전해 보려고 한다.

부산Y 이신영 간사

부산Y 키다리학교는 '생명'이라는 주제 하에 키다리학교 학생들이 이와 관련한 토론 및 조사활동을 해왔다. 4월에는 1년 활동에 대한 주제와 세부 활동을 계획하고 역할 분담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5월과 6월에는 유기농 식품과 같은 먹을거리에 대해 조사한 후 발표하고, 유기농 상품과 일반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맛보고 평가함으로써 객관적인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다. 7월에는 부산에서 진행된 동부지역Y 청소년 탈핵 캠페인에 참여하였고, 이를 계기로



고리1호기의 위험성에 대해 알게 됐다. 입학식 때 다소 서먹했던 키다리들이 상반기 활동을 하며 보다 가까워졌고, 키다리학교라는 소속과 연대의식이 자라난 것 같다. 이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보다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키다리학생들의 참여를 기대해본다.

서울Y 강보경 간사

서울Y 키다리학교는 3년째 '인권'을 주제로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는 '청소년 인권'에 포커스를 맞춰 키다리들이 직접 경험한 인권문제에 대해 토의하고 이를 통해 직접 대본을 쓰는 등 인권연극을 기획해 진행했다. 여름 내내 매일 모여 연극 연습을 한 후 8월 12일 서울Y 청소년회원들을 초청하여 첫 발표회를 가졌다. 연기를 전문적으로 배운 학생들이 아니어서 연기를 빼어나게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에서부터 출연까지 키다리들이 직접 참여했기에 함께 참가한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었다. 하반기에는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인권교육극 토크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이 인권교육극을 통해 인권에 대해 쉽게 접하고 느낄 수 있도록 돕고 또래 청소년들의 고민도 함께 나눠보는 토크콘서트를 통해 만나게 될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기대된다.

안양Y 최정근 간사

안양Y 키다리학교는 올해 들어 3년차. 아이들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조금씩 눈에 보인다. 친구들에게 키다리를 소개하기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스스로 만들어보

려고 하기 시작했으며 그로 인해 작년보다 더 많은 키다리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2014년은 생명사랑을 주제로 20명의 키다리들이 활동계획을 세우고 텃밭가꾸기, 재활용품으로 환경미화하기, 아나바다 장터 등을 진행하였고 아나바다 장터에서 생긴 수익금을 북한어린이 분유돕기 성금으로 기부하는 등 상반기를 마무리하였다. 하반기에는 생명퍼포먼스 난타와 댄스공연을 준비 중이다. YWCA 안에 아이들의 놀이터라고 이야기하는 키다리학교는 청소년들 스스로가 사소한 일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곳이다. 안양Y 키다리들은 주변 친구들에게 키다리다운 색깔을 물들이고 있으며 미래의 자신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함께하고 있다.

평택Y 정혜근 간사

평택Y 키다리 학교는 '키우자, Y다운 평화'를 주제로 활동하고 있다. 10명의 키다리들이 생각하는 평화와 관련된 활동을 계획해 진행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환경보호 피켓을 만들어 지역으로 나가 쓰레기를 주우며 환경보호 캠페인을 펼쳤으며, 북한이탈주민 강사를 초청해 평화통일에 대한 강의를 듣고 경제적인 측면과 인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통일은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 통일이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하반기에는 평화통일과 관련하여 비무장지대와 판문점 견학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평화를 위한 활동으로 독거어르신 가정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평택Y 키다리학교는 올해 처음 활동을 시작한 만큼 서툰 면도 있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나가리라 기대한다. YWCA

핵 없는 세상 우리 손으로

2014년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제16차 한일YWCA청소년협의회가 개최되어 한국 대표로 Y-틴, 대학청년Y 회원, 실무활동가 등 20명이 참석했다. '핵발전 정책의 위험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본 협의회에서는 1945년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현재의 원자력발전소가 똑같은 핵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하고, 에너지 절약 등을 다짐하며 모두가 함께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시간을 가졌다.

탈핵의 기적을 소망하며



글 | 손지수 (대7YWCA Y-틴)

모임과 2차 사전모임을 거치며 우리나라 핵발전소의 역사와 교육과정의 문제점 등 새로운 사실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협의회 다양한 활동 중에서도 원폭 1세 토요일을 만났던 시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원폭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제가 원폭이라는 끔찍한 고통의 순간을 직접 경험하신 분을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으니 책과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고 평화기념관을 관람하고 난 뒤여서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받았는지 공감이 더 잘되었고 이제야 히로시마 원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알게 되어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협의회에서 매일 저녁 진행되었던 의견 나눔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단순히 의견을 공유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모아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했던 것이 좋았습니다. 이를 통해 내가

탈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오면서 지금까지는 핵발전소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지 원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를 준비하면서 원자력발전소 뿐 아니라 원폭 등 제가 몰랐던 다양한 주제에 대해 알게 되었고 연구

체험하지 않았던 활동도 마치 체험한 것처럼 느낄 수 있었고 한글과 일어가 함께 있는 결과물들을 보니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하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활동을 하면서 일본 친구들과 의견차이도 생기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들을 이해하면서 함께 했다는 것 자체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협의회를 준비하면서 대학생들 사이에서 주눅 들어 참여도 적었고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 아쉽고 죄송했는데 활동하는 내내 언니, 오빠들이 배려해주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서 제 의견을 조금씩 이야기하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협의회가 끝나고 일상생활에 돌아와 학교에서 물리 수업을 듣는데 원자력의 이로운 점과 핵발전소 신화에 대해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선생님과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친구들을 보며 우리가 협의회에서 다루었던 문제점을 직접 느낄 수 있었고 이게 현실이라는 생각에 잠시 좌절했지만 주변에 앉아있는 친구들에게 협의회에서 제가 배운 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탈핵에 대해 이야기해 주며 아이들이 공감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모습을 보며 희망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탈핵운동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탈핵을 이룰 수 없지만 우리들이 노력하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면 원폭으로 황폐화된 히로시마에 기적처럼 피어오른 식물처럼 우리나라에도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에게 진정한 평화란 무엇입니까?



글 | 김광식 (청주YWCA 대학Y)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그로부터 69년 후 멈춰버린 시계 속에 원폭의 위험과 전쟁의 역사 남아있는 히로시마에서 한, 일 양국의 청소년들이 진정한 평화를 말하기 위해 모였다.

2014년 8월 15일 일본 히로시마행 비행기에 오르며 시작된 제16차 한일YWCA청소년협의회, 어느덧 이 협의회에 3번째 참가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탈핵이라는 주제 아래 계속 진행된 한일Y협의회와 함께 깊은 관심을 갖게 된 탈핵이었기에 큰 기대와 설렘을 갖고 비행기에 올랐다. 꽤 늦은 시간 숙소에도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와서 준비하고 있던 일본 참가자들의 환영에 그 기대와 설렘이 기쁨이 더해져 두 배가 되고 있었다.

첫 번째 현장 탐방일정으로 16일에 둘러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과 그 안에 위치한 평화기념관. 그곳에는 원폭으로 인한 피해와 그 상흔, 사람의 욕망이 불러올 수 있는 참혹한 결과를 고스란히 담아 보여주고 있었다. 핵의 위험성, 결코 핵이란 평화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숙소로 돌아오는 길, 아쉬운 마음이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했다. 전쟁의 원인과 그의 결과로 이뤄진 역사가 있음에도 원폭의 무시무시한 결과만을 보여준 기념관과 공원 일대의 구성에 평화공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곳에 반쪽짜리 평화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17일에 방문한 두 번째 현장 탐방 장소는 이와이섬이었다. 이와이섬은 핵발전소건설 후보지로 결정된 이후 주민들이 핵발전소를 반대하기 위해 모든 생활을 자급자족으로 해결하는 섬으로서 우리는 세 그룹으로 나뉘어 친환경으로 자급자족을 실천하고 있는 농장과 절벽과 같은 불모지를 세계대전 이후 논으로 개간하여 현재까지도 논농사를 일구고 있는 계단식 논을 방문하였다. 모든 생활을 자급자족하며 결국 핵발전소 건설 막을 수 있었던 이와이섬 주민들의 이야기와 식량의 자급자족과 후세대의 식량부족을 걱정하



32년동안 카미가세키 핵발전 건설을 반대해온 이와이섬 현장을 찾았다.

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계단식 논과 다이카 할아버지 부자(父子) 이야기는 당장의 욕망과 욕심에 간혀 자연과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고 핵발전소를 고집하고 있는 현실, 후대에 핵폐기물이라는 무시무시한 쓰레기를 안겨 주고도 핵의 평화적 사용이 가능하다고 외치는 세상이 잘못됐음을 알려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이와이섬에서의 이야기 또한 작은 섬마을을 넘어서 거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핵발전소를 막기 위한 자급자족의 길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현실적 대안의 문제로 돌아보게 하는 일정이었다.

협의회 일정 내내 우리가 찾고자 했던 진정한 평화는 무엇일까? 원폭의 무시무시한 위험성을 보여주는 평화공원, 자급자족으로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이와이섬 그곳을 보고 우리는 어떤 평화 외쳐야 하는 것일까? 협의회 일정 마지막 날 우리는 각자가 느끼고 생각하는 세상, 평화를 나눴다. 나의 평화는 역시나 탈핵이었다. 단순히 현실점에서 더 이상 핵을 사용하지 않고 금지하는 것 반쪽짜리 탈핵이 아닌, 지금까지의 잘못된 핵사용의 역사를 인식하여 숨기지 않고 핵에서 벗어나 그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만들어 내어 후세대에게 위험과 걱정을 남기지 않는 완전한 탈핵이었다.

이번 4박 5일간의 협의회 일정으로 우리가 가졌던 만남, 그 만남 속에서 느끼고 나누는 평화를 위한 열정으로 세상에 소리쳐본다. '당신에게 진정한 평화란 무엇입니까?'

나누며 성장하는 모금의 터 YWCA

글 | 조영미 (연합회 북한어린이돌기사업단 부장)

2013년에 이어서 진행된 2014년도 모금워크숍은 올해는 대전, 순천, 부산, 서울, 전주, 청주 총 6개 정회원 YWCA와 2013년도 참가 회원YWCA인 고양YWCA 및 연합회 장기 모금전략 수립팀이 함께 참여하여 6월부터 7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매회 6시간 동안 (주)도움과나눔과 함께 진행하였다.

2014년도에는 특별히 1차 사무총장협의회와 회장단 연수를 통해서 기독교여성운동체이며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YWCA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하며, 소통할 수 있을지와 모금과 운동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음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 속에 진행되었다. 따라서 2014년도 모금워크숍에서는 장애 기부자 분석과 더불어 신규 기부자 발굴, 현재 기부자의 업그레이드, 유지전략, 거액모금을 위한 준비 등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모금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는가? 모금워크숍의 첫 시작에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받았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모금으로 생각했던 우리에게 달리 생각하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생을 의미있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라는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기부자들의 인생을 생각해야 장기적으로 모금에 성공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방향성과 목적이 필요한 것이 모금이고 'Fundraising은 Friend-raising'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울러 남자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언젠가는 헤어질 것을 두려워하거나, 알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하면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그저 함

께 있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즐겨 마시는 차가 어떤 것인지, 취미는 어떤 것인지 관심을 갖고 귀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행복한 것처럼 모금도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담감을 가지기 보다는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인생에 어떠한 의미를 함께 나눌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금을 '로맨스'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질문이 던져졌다.

첫째, 조직의 정체성과 모금은 어떠한 관계인가?

둘째, YWCA에서 회원은 누구이고, 후원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셋째, 모금과 운동, 사업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YWCA는 92년의 역사 속에서 이 시대에 깨어있는 기독교 여성 리더들의 실천을 담보하는 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YWCA는 개별 운동에 대한 최고를 지향하는 조직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과 함께 적절한 메시지와 실천의지,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Y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 삶이 Y의 정신으로 바뀌고, 유의미한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고, 내가 성장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금과 운동은 맞닿아 있다. 따라서 YWCA는 끊임없이 지적인 자극, 정서적인 돌봄과 영적인 돌봄이 나누어지는 장소여야 한다.

우리는 강의 중 아미시공동체의 이야기를 접했다. 2006년 펜실베이니아주의 아미시 마을에 정신 이상자가 침입하여 총기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 아미시 마을의 총기사건을 미국인들에게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없다'는 자괴감까지 심어줄 정도로 충격적이었다고 한다. 총기난사 사건 이후 아미시 주도로 꾸러진 대책위원회에서는 외부의 기부를 거부했는데 이는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미시끼리의 상호부조의 전통을 세우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대책위는 며칠 후에 '외부인들에게 기부하는 축복을 빼앗지 않고자 한다'며 기부를 허용했다고 한다. 이유는 아미시인들이 기부를 하는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미국 사람들에게 치유를 또한 선물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선물을 줌으로써 자괴감과 실의에 빠진 미국인들에게 치유가 되는 것을 돕고자 함이었다. 이와 더불어 아미시들이 보여준 용서와 사랑, 고통의 상처를 서로 도와서 치유한 과정은 미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한다.

Y의 모금이 거액이든, 바자회에서 물건을 사도록 하는 것이든 그것은 사회에 대한 돌봄이요, 설교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프로그램 안에서 지적인 돌봄과 영적, 정서적 돌봄을 나누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


다.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지를 늘 세밀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3회의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들을 발견했다. 지적, 영적, 정서적 돌봄을 나타내는 YWCA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무엇인가? 우리는 나눔으로써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잠재기부자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 그리고 매일 우리에게 기쁨으로 작은 정성을 주는 기부자들에게 어떠한 예우를 하고 있는가? 아울러 YWCA 운동을 지원하고 참여할 거액기부자들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

모금워크숍은 3회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6개 회원 YWCA는 이제부터가 모금운동의 시작임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첫 시간부터 우리는 모금워크숍을 통해서 쌓이 트기를 원하는 씨앗을 기도제목으로 적어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모금에 대한 용기와 Y의 건전한 재정을 위한 방향을 수립하게 되기를, 지역사회에서 쓰임받는 Y의 모습이 되기를,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잠재기부자와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두려움을 딛고 사람들을 기쁘게 만나는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도하며 격려를 나누었다.

그리고 1년 후의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상상하며 이러한 소망들이 작은 결실로 다가오게 되기를 소망했다. 우리 모두가 지적인 자극, 정서적인 돌봄과 영적인 돌봄이 있는 모금의 터로 거듭나기를 다짐했다.

“모금워크숍 회수가 거듭될수록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이사, 위원, 실무자 교육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워크숍 이후에 Donor Box를 만들었어요. 이제 Y에 들어오는 분들에게 Y는 무엇으로 모금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의 긍정적인 변화는 벌써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결실은 친구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는 가운데 꽃피우게 될 것이다. 하나씩 변화되는 모금의 터 YWCA가 되기를 기대한다. 

'도스뜨' 들의 '도스뜨(친구)' 가 되기 위한 도전

10명의 지구시민 자원활동가들은 2014년 7월 2일부터 8월 23일까지 인도 살렘 지역에서 지역 여성과 아동, 빈민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과 영어 기초교육, 보건과 인권교육, 문화예술 교육 활동을 마치고 돌아왔다.

김은경 (도스뜨 자문위원장, 연합회 실행위원)

2014년 여름은 Y의 자원지도자로 보낸 8년 동안의 경험 중에서도 특별한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지구시민 자원활동가 프로젝트 '도스뜨'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참가자 선발부터 사전교육, 인도 살렘지역의 현지 활동 지원에 이르기까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Y지도력 개발 현장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도스뜨 단원들도 적지 않은 깨달음과 배움이 있었다고 했다. 한국인임이 자랑스럽다는 단원도 있었고, 준 것보다는 받은 것이 더 많은 경험이라는 단원도 있었다. 소외지역 여성들과 아이들에 대한 살렘와이 실무자들의 열정도 놀라웠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이를 위한 한국Y와 인도Y 연대의 중요성에 관한 공감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일단락된 지금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쉬움'이다. 도스뜨 프로젝트를 위해 투입된 관계자들의 열정과 물리적 시간, 물질적 자원들을 고려할 때, 나아가 Y의 운동성과 현장성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평가할 때, Y의 기독교 안에서 성장한 젊은이들의 참여로 북적대었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다. 젊은 지도력의 부재와 Y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염려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한국Y만의 일도 아니다. 그렇기에 청년 리더십 개발을 주제로 한 회원Y들의 노력도 전과 다르게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Y 안에는 도스뜨 프로젝트와 같은 소중한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젊은이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으며, 또 하지 않은 일은 무엇인가 되묻게 된다.

이제 겨우 2차례의 시도로 너무 많은 것을 바란다고 꾸짖을 분들도 계실 줄로 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참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근거 없는 낙관 속에 기약 없는 기다림은 위협할 수 있기에 서두르고 싶다. 실수를 통해 성장하듯, 지난 경험들이 안고 있는 교훈들을 찾아내서 Y의 비전을 현실로 바꾸어 나갈 동력을 찾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지금과는 다른 결과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처럼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지난 한달 동안, 나보다 어린 친구들과 혹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나누어본 적이 얼마나 있는가? 삶의 공간마저 달리하는, 그러나 나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을 만나본 적이 얼마나 되는가? 반성해본다. 그리고 계획한다. 현장에서 한데 어우러지는 자원지도력과 미래지도력을 꿈꾸어 본다. 세대 간 충돌과 갈등 속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엄청난 시너지를 발산하는 어울림과 소통을 꿈꾸어 본다.

결국, 보이지 않는 다음 세대를 보이게 만드는 책임은 현재 Y를 이끄는 지도력들에게 있다. 집에서 출발하여, 택시, 공항버스, 비행기, 열차, 심지어 세발 트럭까지 모든 교통수단을 총 동원하여 꼬박 이틀을 걸려 살렘이라는 지역까지 찾아가 빈곤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여성과 아이들의 친구가 되겠다고 나서는 도스뜨들의 탄생은, 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주는 도스뜨들의 도스뜨, 즉 현재의 Y지도자들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

다. 간절한 기도와 실행력으로 무장한 지도자들의 과감한 도전이 필요한 때이다.

'감사함' 도스뜨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를 기획하며 드는 생각이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 소중한 경험을 함께 한 Y안의 동역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홍진영 (세종Y 청년 담당 팀장)

YWCA의 7년차 청(소)년 중견 실무자로서 도스뜨에 참가하면서 얻고 싶었던 것은 한국YWCA에서 요구하는 이 시대의 청년 리더십에 대해 좀 더 배우고, 앞으로 내가 지도자로서 청년들에게 어떠한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지였다.

5월부터 진행된 두달 간의 사전교육 동안 우리는 이매진피스 대표 임영신 선생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위원 김상균 위원님, 서울시 인권위원회 문경란 선생님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국제자원활동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직접 진행할 보건위생, 인권 및 성교육은 어떤 관점에서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또 당시 인도YWCA 사무총장이셨던 라일라 파사와의 만남, 2012년 도스뜨 단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도스뜨 2기 단원으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준비했다.

그렇게 많은 준비를 했다고 자부하면서 떠났는데 막상 도착해서 마주한 많은 난관들을 겪으면서 과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 순간들이 적지 않았다. 팀원들 간의 갈등, 준비한대로 진행되지 않는 교육, 인도 시골에 위치한 살렘의 문화적 특성상 약속한대로 일정이 수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올 때쯤 얻은 큰 깨달음은 함께 활동했던 단원들이 삶을 맞대며 지냈던 지난 2개월이 가장 큰 공부였고 큰 배움이었다는 것이다.

김은정 단원(가천대 경제학과)

인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 무엇보다 놀라웠던 점은 순수하던 사람들의 눈망울과는 다르게 위생환경이 매우 열악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이던 공용화장실도, 수도꼭지도 보이지 않았던 환경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많이 안타까웠다. 뛰어 놀고 있는 아이들 뒤로 쓰레기 더미가 산처럼 쌓여있고, 사람들이 아무데서나 용변을 해결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순간 너무 열악한 공간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연민이 들었다.

하지만 이런 환경을 보며 나도 모르게 아이들이 먼저 내밀던 손을 피하고 말았다. 초심이 사라진 것 같아 자괴감에 빠져있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위생 환경을 만들어 줘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차근차근 손 씻기 교육을 시작했다. 낯선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고 손을 내밀었을 때, 과연 처음 그들이 느낀 감정이 어땠을까 궁금했다. 거부감이 들지는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우려와는 달리 그들은 너무도 잘 따라와 주었다. 낯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기란 쉽지 않았으리라. 너무 잘 따라와 준 던 스쿨(Dawn school) 학생들, 탄잠(Thanjam) 학생들 모두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우리의 교육을 통해 깨끗한 환경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 알게 되었

으리라 생각해본다. 활동 마지막 날 그들 모두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비록 우리의 활동이 끝났지만, 그들과 또 다음 세대가 앞으로도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다.



김미애 (연합회 간사)

9번의 사전교육과 2개월의 현지 공동체 생활을 통해 다양한 삶의 방식과 생각을 가진 단원들을 만났고, 공동체 생활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타인을 향한 관용의 중요성을 만날 수 있었다.

남인도 타밀나두 주 살렘. 그곳에서 결혼한 여자가 직장에서 남자동료와 웃으며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 하나로 집에서 쫓겨난 레바티를 만났고, 레바티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자신의 일처럼 열심을 다하여 여성을 지원하는 살렘 지역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살렘Y의 루비 사무총장님을 만났다. 또한 AIDS/HIV 밀집 지역에서 살렘Y가 운영하는 던 스쿨을 다니며 재봉기술을 배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직업을 구하기 원하는 비살라치와, 부모님과 자신 모두 HIV 양성 환자이지만 웃음을 잃지 않고 배움을 통해 꿈을 키워가는 16살 아시크를 만났다. AIDS/HIV 양성 환자들을 위해 물리적·정서적·사회적으로 전인적인 지원을 하는 A.R.T센터(Anti-Retroviral Therapy Center, 에이즈 치료를 위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센터-편집실 주)에서는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루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AIDS 양성 환자들을 만났고, 주말이나 밤낮없이 동행하여 우리의 현지 자원활동을 더욱 빛나게 해준 소중한 친구, 살렘Y의 실무자 텡쿠마와 라사를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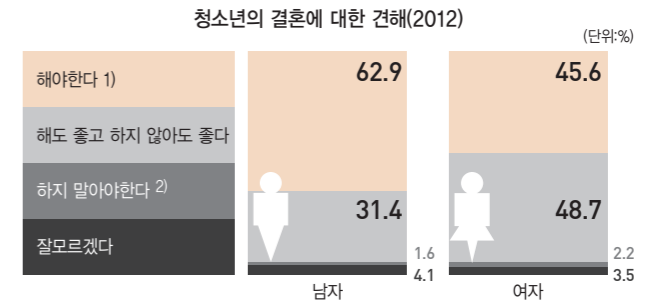
이 모든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만남은 세계 속에서 끈끈하게 연대되어있는 인도Y와 한국Y의 만남, 한국Y와 외환은행나눔재단의 만남, 만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모든 지원을 맡아주셨던 많은 연합회 식구들, 그리고 귀국의 순간까지 쉬지 않고 기도해주신 기도의 후원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무사하게 현지 자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해주시고, 도스프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지구시민자원활동가로 한 뼘 더 성장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

남녀 청소년의 결혼, 가사분담, 양성평등에 대한 견해는?

● 결혼에 대한 견해

2012년 결혼에 대해 남자 청소년은 62.9%가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여자 청소년은 45.6%에 그쳐 남녀 청소년 간 결혼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2, 만 13세~24세 대상임
주 : 1)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를 합한 수치임
2) '하지 않는 것이 좋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를 합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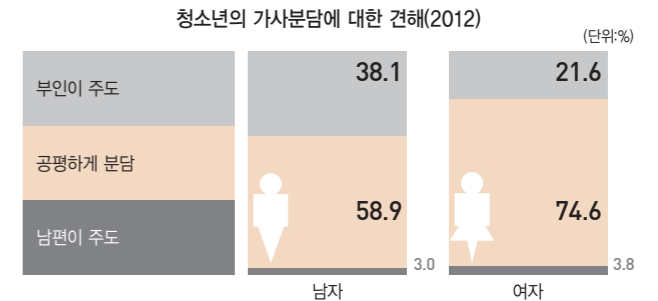


●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2012년 청소년 66.7%는 가사에 대해 '공평하게 분담'하여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남자 청소년은 58.9%, 여자 청소년은 74.6%로 나타남

○ 가사분담에 대해 '부인이 주도'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 청소년 38.1%, 여자 청소년 21.6%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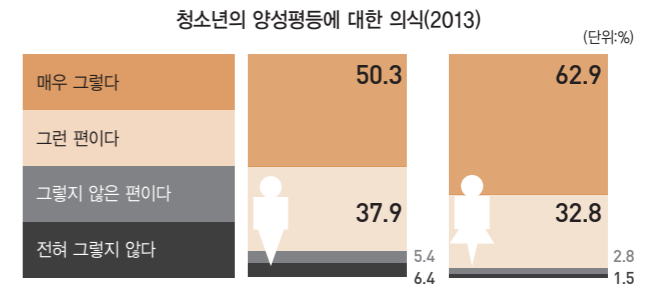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2, 만 13세~24세 대상임



●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

2013년 청소년 10명 중 9명(91.7%)은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의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의식은 여학생(95.7%)이 남학생(88.2%)보다 7.5%p 높았음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2013, 초등학교(4학년~6학년), 중·고등학교 대상임




식량난으로 북한어린이 영양결핍 심각

글 | 김주영 (연합회 북한어린이돕기사업단 위원)

북한은 1970년대에 이미 본격적인 보육정책이 수립되어 무상보육국가의 측면에서 선행국가이다. 그러나 그 실행 배경은 우리와 매우 다르다. 여성 인력의 노동력 확보와 사회주의 원리에 입각한 집단주의적 사상교육을 어릴 때부터 주입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북한은 1975년도에 이미 탁아소 및 유치원이 약 6만 여 개소가 있음이 발표된 바 있으나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심각한 식량난으로 탁아소 역시 음식의 공급이 어려워져 1996년 남북문제연구소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3만 여개의 유치원, 탁아소 중 70%가 사실상 폐쇄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아울러 체제교육을 강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아버지 고맙습니다.'라고 복창하고, 혁명가를 부르며 유희는 벽에 걸린 사진을 향해 하게 한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어린이보육교양법'(1976년 4월 29일 북한이 채택한

보육에 관한 법으로 '아동복지 및 보호에 대한 정책을 실시한다.'가 그 내용이다.)에 명시 되어 있는 규정은 이상적인 목표일 뿐 보육원들은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정서적, 사회적 관심이나 자극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탁아소 이용 실태에 관한 북한이탈주민 조사에 의하면, 2000년 이후에는 간식이나 급식의 제공이 끊겼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도시락을 지참하고 부모에게 식비, 난방비 등의 운영 지원금을 요구하는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지금 어린이 보육의 질적 저하뿐만이 아닌 실질적인 무상보육이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모두 북한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할 때이다. 상황의 긴급성을 깨닫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어린이돕기 후원 명단

7~8월 (2014년 7월 1일 - 8월 31일)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CMS기부 (2014. 7. 1. ~ 8. 31)	강승아, 강현중, 고세영, 고은희, 박지영, 구정혜, 국승훈, 권순복, 권진, 김가혜, 김건세, 김기동, 김명희, 김미애, 김병호, 김사라, 김수연, 김애련, 김영자, 김은경, 김재연, 김진용, 남솔, 남희숙, 명진숙, 문미란, 문인수, 박보람, 박용옥, 박은실, 박임희, 박진화, 박효정, 배정미, 백세원, 백정미, 백혜진, 서명희, 송록희, 송윤경, 신인숙, 안정희, 안혜진, 엄효정, 오시창, 원영희, 유도희, 유성희, 윤명선, 윤수정, 이남희, 이명혜, 이순덕, 이영미, 이영숙, 이윤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주영, 이지은A, 이지은B, 이행자, 이혜련, 이혜진, 임강숙, 임국이, 임진영, 장경자, 장미란, 장선희, 장윤우, 전정미, 전하예, 정동신, 정서연, 조영미, 조은선, 조은희, 조은희, 진인식, 채정희, 최수선나, 최우림, 최원진, 최윤영, 최지혜, 최형선, 하은경, 한영수, 홍기자, 홍현정, 황정아, 황홍백 (총 94명)	2,809,380
개인기부 (월계좌이체기부, 기념기부 등)	김미, 방원철(성광교회), 최혜실	410,000
협력교회	기쁜소식교회, 한양대학교교회 여성교회, 화성교회, 흥성행복한감리교회	340,000
기관 및 단체	부천원미유치원(부천Y이사), 마포구청 여성교회, 광림교회 수목회	655,350
회원YWCA 부속시설	김해YWCA, 대전YWCA, 파주YWCA	615,280
교육 및 모임	평화기도회 헌금	280,000
저금통기부	송관철(사회적기업진흥원), 이진용 위원, 외환은행동지점 창구	76,090
합 계		5,186,100

연합회 소식

9월 월례기도회



9월 월례기도회가 9월 1일 오전 8시에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위원이자 여성신학자인 최만자 위원이 '생명위기의 시대 - 공감과 연대의 지도력으로'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미리암의 지도력과 같이 Y 회원들도 아픈 이들과 공감하고 연대하는 지도력을 통해 공동체의 위기를 이겨 낼 것을 함께 소망했다. (자세한 내용 5쪽에)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 청소년 탈핵 캠페이너 활동



매주 화요일 연합회 회관 앞에서 펼쳐지는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은 논산(제19차), 통영(제20차), 남양주·성남·하남(제23차), 제주(제24차) 등 적극적인 회원Y의 참여로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특히 8월에는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탈핵 캠페이너'로 참여해 명동을 지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핵폭발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며 호소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앞으로 핵의 위험성과 수명 끝난 핵발전소에 대해 친구들에게 알리고, 에너지 절약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8.15 평화통일 남북교회 공동예배

연합회 차경에 회장은 1989년 WCC 중앙위원회가 글리온 2차회의에서 결의하고 2013년 WCC 부산총회에서 채택한 '한반도 평

화와 통일에 관한 선언', 2014년 스위스 보세이에서 열린 국제협의회회의의 재확인 사항인 '8.15 기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공동기도주일'을 남북이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 NCC가 공동으로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평양 봉수교회에서 개최한 8.15 평화통일 남북교회 공동예배에 참석했다. (자세한 내용은 15쪽에)

한반도 평화행진과 기도회

연합회 한미미 집행위원회는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NCCK주최로 진행된 한반도 평화행진 및 기도회에 참여하여 워싱턴 D.C. 파운더리교회에서 백악관까지 '평화조약체결'을 요구하는 행진에 참석했다. (자세한 내용은 15쪽에)

2014 YWCA 평화기도회 및 강연회

8월 12일 연합회 강당에서 '2014 YWCA 평화기도회 및 강연회'가 열렸다. '하나 되어야 할 평화의 땅,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를 주제로 광복절 주간에 개최된 기도회는 8.15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남북이 하나됨으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위해 기도했다. (자세한 내용은 15쪽부터)

2014년 제2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

2014년 제2차 사무총장협의회가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대전유성호텔과 세종시 일대에서 48명의 연합회 및 회원Y 사무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자치시대의 YWCA 지역운동성 강화'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Y운동을 회원·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지역을 변화시키는 운동으로 힘있게 전개하기 위한 방법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27쪽에)

2014 YWCA 청년평화캠프

2014 한국YWCA 청년평화주간을 맞이해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간 대전동구청청소년수련관에서 '2014 YWCA 청년평화캠프'가 열렸다. '우리가 만드는 평화 세상'이라는 주제로 총 230여 명이 모여 탈핵 강연과 토크콘서트, 워크숍과 더불어 직접 평화선언문을 작성하고 선언했다. (자세한 내용은 10쪽에)

제16차 한일YWCA청소년협의회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제16차 한일YWCA 청소년협의회가 개최되어 한국 대표로 Y-틴, 대학청년Y 회원,

실무활동가 등 20명이 참석했다. '핵발전 정책의 위험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본 협의회에서는 우리가 지향하는 탈핵 사회가 가능함을 확인하고 에너지 절약 등을 다짐하며 모두가 함께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시간을 가졌다. (자세한 내용은 32쪽에)

2014 YWCA 복지관 및 자활·노인센터 직원연수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대구YWCA와 대구 인터넷고 엑스코호텔에서 1박 2일 동안 2014 YWCA 복지관 및 자활·노인센터 직원연수가 진행됐다. 총 9개 회원YWCA 소속에서 15개 기관 직원 및 연합회 실무자 등 총 95명이 참석했다. (자세한 내용은 28쪽에)

연합회 중견 및 신입실무자 연수

연합회 실무자교육이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총 13명의 참가자와 함께 남이섬에서 진행되었다. 중견 4명, 신입 6명을 대상으로 1박 2일씩 연이어 가졌으며, 남이섬 강우현대표와의 만남 및 자연 속 이야기 나눔 등을 통해 활동가로서의 꿈과 비전을 공유하고 힘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

2014 씽크머니 2차 YWCA 금융강사교육(기초과정)



상반기 1차에 이어 2차 씽크머니 YWCA 금융강사교육(기초과정)이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7월 7일부터 6주간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씽크머니 예비 금융강사들은 8월 27일 서울YWCA 대강당에서 진행된 오프라인 교육에 참석하여 YWCA와 씽크머니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강사 활동을 위한 자세와 준비 방법을 배우며 강사로서의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프라인 교육에는 예비 YWCA 금융강사 91명이 참석했다.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제2차 운영위원회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제2차 운영위원회가 8월 21일 대전YWCA 강당에서 진행됐다. 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과 지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및 사무국장,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관계자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해 광역시도별 네트워크 진행상황과 하반기 공동사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하반기 전국네트워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인 사회적기업활성화네트워크 연구사업과 우수 사회적기업 어워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제2차 YWCA 영유아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워크숍

제2차 YWCA 영유아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워크숍이 8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YWCA 영유아 평화교육 연구교사진으로 참여하는 부산, 성남, 세종YWCA 어린이집 교사와 자문위원단이 모여 상반기 활동 나눔과 하반기 활동을 계획하고 공유했다. 한국Y는 YWCA 평화교육 연구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영유아를 위한 평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출범식



연합회는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에 참여하며 9월 3일 서울역사에서 출범식에 연합회 차경애 회장이 참석했다. 시민단체, 공기업, 직능단체 등 38개 기관과 단체는 이날 출범식에 맞추어 '청렴국가, 투명한 사회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출범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앞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등정

-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취임 문미란 (연합회 실행위원)
- 신입 사무총장 임성숙 (제주Y) 2014. 07. 01 유희경 (평택Y) 2014. 07. 07 박영애 (김해Y) 2014. 08. 01 남덕순 (광명Y) 2014. 08. 19

출간

- YWCA 자원활동가 교육 표준안 (연합회 Y0카데미)
- 여성의 이름으로 탈핵을 외치다 (연합회) (ISBN 978-89-968156-7-9)

북부

강릉YWCA

정경진 간사

청소년 유해환경 캠페인



8월 4일 오후 4시 강릉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경포 해수욕장 주변에서 청소년 흡연·음주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전환하고 청소년보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흡연·음주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 성장기 흡연·음주가 성인에 비해 신체적·정신적 폐해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흡연·음주의 유해성 및 중독성을 널리 홍보하는 등 사회적인 관심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동해YWCA

김정은 간사

청소년 공감증진 프로그램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접근을 위해서 청소년들이 서로를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청소년들 상호간에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공감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7월 16일 연합회 박은실 중점운동국 국장과 7월 26일 연합회 이귀혜 Y-틴 위원회 위원을 강사로 모셔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다양한 활동 위주의 수업으로 아이들이 집중하여 재미있게 진행하였다.

속초YWCA

최훈실 간사

가정폭력 예방 거리캠페인



8월 5일 가정폭력 예방 거리캠페인을 가졌다. 이날엔 속초YWCA 회장, 이사들과 실무자 6명이 참석하여 가정폭력 이해 및 예방대처 신고에 관한 안내 전단지들 상가와 행인에게 배포하고, 천막설치 홍보 동영상 상영 및 직접 상담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상처받은 가정의 평안을 회복하고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인식전환이 되기를 기대한다.

춘천YWCA

이복희 본부장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심화·경력자 교육



8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 총 40시간 동안 춘천YWCA와 타 제공기관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로 종사하는 21명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심화·경력자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공인력으로 활동하는 교육생들이 경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지만 항상 배움의 자세로 좀 더 체계적이고 내실화된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더불어 서비스 마인드를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경기

고양YWCA | 남궁혜경 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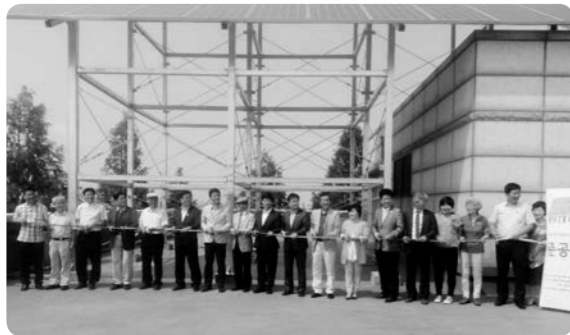
청소년 환경지킴이 자원봉사대



8월 5일, 7일, 12일 총 3일동안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환경교육을 진행했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시작으로 EM생활환경교육, EM휴공만들기, EM캠페인, 한류천 정화를 위한 EM 휴공투척 및 하천쓰레기줍기, EM전연비누만들기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청소년들에게 환경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생활 속에서 물을 아끼기 위한 실천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천YWCA | 이지원 간사

'부천시민햇빛발전소' 제1호기 준공



7월 16일 부천시민햇빛발전소 제1호기 준공식이 열렸다. 2012년부터 부천시 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시민햇빛발전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이래, 2년여 만에 드디어 햇빛발전소 제1호가 준공된 것이다.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관리동옥상에 설치되었고, 용량은 39.99KW이다. 출자액 총 105,800,000원을 모으는데 부천YWCA도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 단체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힘을 보탰다. 햇빛발전협동조합 창립부터, 부지 임대계약, 공사허가, 착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우여곡

절이 많았으나, 하나님이 주신 햇빛에너지로, 지역을 살리는 생명이 너지운동이 널리 퍼져나가길 간절히 바란다.

성남YWCA | 황정아 간사

다문화 예비학부모교실 '우리아이 초등학교 가요!'



성남Y는 6월부터 초등학교 예비학부모가 되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다문화 예비학부모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8월 9일에는 '책읽기 글쓰기' 특강이 있었으며, 예비학부모와 아이가 함께 책을 읽고 느꼈던 점을 시와 그림으로 표현해 본 뒤 작은 시화전도 열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이민여성과 아이들에게 책읽기가 놀이가 되고,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두려움이 기대함으로 변하기를 바란다.

수원YWCA | 정지영 간사

한일청소년 국제교류캠프



수원Y는 작년에 이어 교토YWCA와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한일청소년 국제교류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청소년 국제교류캠프는 환경과 문화에 대해 이해를 증진하고 젊은 지도력을 양성하고자 환경워크숍과 홈스테이, 전통문화 체험, 문화재 견학 등으로 구성되었다. 한일문화 소개한마당에서 수원Y 참가자들은 케이팝, 한국지역, 찜질방 문화 등을 직접 일본어로 발표했으며, 교토Y 측은 유카타와 기모노의 차이, 일본판 '우리 집에 왜 왔니'를 선보였다. 양국의 참가자들은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를 연극으로 만들어 공연하고 함께 일본 노래를 부르는 등 적극적으로 교류활동에 임했다. 앞으로 수원Y는 적극적으로 청소년 교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안산YWCA | 문성은 간사

성인지 예산바로알기 캠페인



8월 11일부터 20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안산 상록수역, 선부동, 고잔동, 성포동 일대에서 성인지 예산바로알기 캠페인을 벌였다. 안산시 시민참여형 성인지 예산 모니터링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성인지의 개념과 성인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이 직접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기회가 되었다.

안양YWCA | 김희정 간사

청소년 참여예산시장간담회



8월 14일 안양시청 3층 상황실에서 청소년 참여예산 제안발표 및 시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필운 안양시장과 교육협력과 및 체육청소년과 등에서 참석해 격려와 제안에 대한 답변을 하였다. 안양Y는 2012년부터 풀뿌리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의 실천인 참여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일원인 청소년들의 예산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자 청소년 참여예산학교 캠페인과 청소년 참여예산제안발표 및 시장간담회를 매년 진행하여 왔다. 2014년 청소년 제안으로 선정된 9건의 내용에는 진로교육 강화, 안양지역 청소년 문화축제 및 고민상담박스 설치, 스태딩 책상 설치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 방청석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었고, 안양방송과 안양시 스마트방송의 취재로 열린 제안발표를 생생하게 전할 수 있었다.

중부

대전YWCA | 김지찬 간사

대전중구 청소년어울림마당 '와락'



6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대전 중구 중교로 차있는 거리에서 4시부터 7시까지 청소년 어울림 마당 '와락'을 개최하고 있다. 8월에는 9일과 30일 총 2회로 진행했으며, 청소년 공연과 체력, 놀이 3가지 파트로 구성된 청소년 동아리 및 초청팀 공연과 목걸이, 팔찌, 책갈피 등 공예와 먹거리, 봉사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1대100 퀴즈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매월 주제별로 운영해 청소년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전 신청자들 중 체험 참가자들에게는 봉사시간을 주어 지역 청소년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제천YWCA | 이경희 부장

에너지교실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5일의 교육과 1일 체험활동으로 구성된 여름방학특강 에너지 교실을 진행했다. 에너지시민연대 후원으로 진행된 여름방학특강 에너지교실은 태양열 풍차와 태양열 자동차 등을 만들어보며 에너지의 발생과 소중함을 경험하고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견학을 통하여 에너지를 아껴야 하는 이유와 방법 등을 배워보는 시간이었다.

청주YWCA | 김지현 간사

'2기 길 위의 평화학교' 개강



지난해에 이어 8월 9일 '2기 길 위의 평화학교' 개강식을 가졌다. 길 위의 평화학교는 남한여성과 북한여성이 함께 지역사회를 이끌어가고 평화통일의 주체로서 평화의 길에 한발 앞서가자는 의미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12월까지 진행될 길 위의 평화학교를 통해서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모임이 이루어지고, 지역사회에서의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

충주YWCA | 김애영 부장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환경캠프



충주푸르미 환경체험단과 Y틴은 8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2일동안 지구를 수호하는 마음으로 환경캠프를 다녀왔다. 국립공원 관계자의 인솔 하에 숲과 문화재와 환경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천년고찰 내소사와 누에타운 관람 및 갯벌체험을 했다. 함께한 60여 명의 체험단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탈핵승 만들기 및 지구 사랑 규칙 정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환경의 귀함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서부

천안YWCA | 이연주 간사

탈북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드림통일캠프'

탈북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먼 길 돌아온 나의 드림레시피 완성기' 프



로그램을 통해 이제 2학기를 함께 시작할 드림학교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멘토들이 함께 통일캠프를 했다.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백석연수원에서 진행된 캠프에서 마음으로 하나되는 진정한 통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광주YWCA | 김해정 간사

Y돌봄 재능기부의 날 '추석맞이 대청소'



8월 23일 'Y돌봄 재능기부의 날' 행사를 가졌다. 광주지역 조손가정과 한부모(부)가정을 대상으로, 선정된 20가정에 방문해 추석맞이 집안 청소를 해드리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밑반찬도 함께 전달해 드렸다. 이 행사는 작년에 이어 매년 1회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봄을 실천하며 나누고 있다.

남원YWCA | 박경은 간사

'애들아, 밥먹자'



8월 11일 Y-틴을 대상으로 쌀의 소중함에 대해 교육을 하고, 리이스를 레이 궁중떡볶이를 만들어 먹는 시간을 가졌다. 8월 20일에는 '신나

는공부방' 이동들을 대상으로 쌀떡볶이수를 만드는 시간을 가지며 아이들이 쌀에 대해 더 친숙해지고, 생활에서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전주YWCA | 김은진 부장

'더 한 밥상' 요리 프로젝트



전주YWCA 청소년부에서는 요리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배움을 더하고, 즐거움을 더하고, 나눔을 더해 하나가 되는 요리 프로젝트 '더 한 밥상'을 운영하여 청소년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5회에 걸쳐 이루어진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에서 만나기 어려운 셰프와 함께 요리를 배우고 만들어서 지역의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다.

목포YWCA | 박수현 부장

2014 Y-틴과 함께하는 삼향천 살리기 프로젝트



7월 26일 Y-틴 회원 20여 명이 모여 하천 정화를 위해 EM(유용한미생물)에 대해 교육을 받고, EM 흙공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2주 정도 발효시킨 후 8월 9일 목포시 삼향천에 발효시킨 흙공 던지기를 실시했다. 모두 함께 삼향천에서 '흙공아, 삼향천을 부탁해' 라고 외치며 흙공을 투척했다. 목포Y-틴 학생들이 직접 실천하고 느끼는 환경 체험을 통해 우리가 사는 지역 내 '삼향천'의 정화운동에 앞장서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순천YWCA | 신현아 간사

제19회 청소년 농촌봉사캠프



8월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 동안 순천주암 광천교회에서 처치스테이로 캠프가 진행됐다. 지도자 및 자원봉사자 40명이 청소년 농촌봉사캠프를 참여했다. 첫째날은 순천YWCA 기관 소개와 류보은 목사의 마을소개로 시작했다. 주암 거주 농부들의 일을 돕기 위해 고추수확하기, 토란대베기, 가마솥기 등 농촌봉사를 했으며 1박 2일 동안 음식 재배 과정을 배우며 농부들의 땀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다.

여수YWCA | 김상희 간사

세계의 흥, 여수와 만나다



여수YWCA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진행된 제14회 여수국제청소년축제에 참여하여 '탈핵캠페인', '에코백&에코수건 만들기', 'EM섬유유연제와 비누', '페인트파티' 등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국내외 청소년과 문화를 교류하고 화합을 다지는 이번 축제는 청소년의 주도적인 활동이라는 데에 의미를 가진다.

서귀포YWCA | 김수진 간사

성인지 의식확산을 위한 심포지움

8월 19일 서귀포YWCA회관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일반시민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인지 의식 확산을 위한 심포지움'을 진행했다. 이번 심포지움은 2014년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서귀포 지역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서귀포시민을 대상으로 성인지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지역살림의 주인으로서 우리 지자체의 예산 및 집행단계에서 성인지적 관점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7월에는 천지동, 대륜동, 정방동 3개 지역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컨설팅을 진행하여 주민참여예산 수립 단계에서부터 성평등적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주민참여 예산을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내셨다.

동부

대구 YWCA | 김세형 차장

제1회 청소년 토론회
- 청소년유해환경 무엇이 최우선 과제인가?



청소년 유해환경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요즘, 복잡하고 다양한 청소년 유해환경은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대구광역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협의회는 매년 토론회를 개최해왔다. 올해는 특별히 청소년들의 시각과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 '청소년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7월 24일까지 예선 접수를 거쳐 청소년유해매체,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이라는 주제로

4팀을 최종 선발하였으며, 8월 8일 대구YWCA 6층 강당에서 토론회를 진행했다. 최우수상은 청바지(청소년 바른 지킴이)팀, 우수상은 YP팀, 장려상은 청사모(청소년사랑모임)팀과 박자매와 이지원팀이 수상하였다. 청소년들 스스로 유해환경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며 어른들과 청소년들이 한마음이 되어, 청소년유해환경 없는 건강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해본다.

대구사랑 다문화가족캠프 개최



대구YWCA 다문화가족캠프가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 동안 다문화가족 50여 명과 함께 진행되었다. 대구근대골목길 투어, 방짜유기박물관 관람,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체험, 가족별 장기자랑 및 신나는 레크레이션 그리고 허브힐즈를 둘러보며, 내가 살고 있는 대구를 알아가고, 가족과 함께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대구YWCA는 2007년부터 '결혼이민여성 한글날 기념 백일장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백일장을 비롯한 다문화여성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또한 올해는 '법무부지원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실'을 운영하여, 다문화 가족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부산 YWCA | 하경량 간사

2014 전직원연수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동안 산청황매산청소년야영장과 연대도 에코아일랜드에서 부산YWCA 전직원연수가 진행됐다. '태양·바람을 품고 생명을 보다'라는 주제로

람을 품고 생명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개회예배, 한국YWCA 중점사업, 탈핵워크숍, 영성교육, 레크레이션, 연대도탐방 등의 내용으로 본부와 지부의 전직원들이 함께 했다. 송실대학교 구미정 교수를 모시고 명화로 보는 성경이야기, 정의·평화·생명 운동체로서의 부산YWCA에 대한 강의를 통한 영성교육, 한국YWCA 중점운동에 대한 공유, 탈핵과 에너지절약의 실천에 대한 고민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울산 YWCA | 김선양 팀장

환경지기단 갯벌체험



8월 9일 남해 문항마을로 갯벌체험을 다녀왔다. 11호 태풍 할롱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남해는 짹짹 날씨가 되어 고기잡이 체험과 갯벌 모물찾기 체험을 무사히 마쳤다. 이날 환경지기단 단원들 25명이 참가하였으며 자연의 신비함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값진 시간이 되었다.

포항 YWCA | 황혜민 간사

행복한 사랑의 빵 나누기



7월 30일과 8월 8일 양일간 Y-틴 청소년들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직접 빵을 만들어 배달하는 '행복한 사랑의 빵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6월 진행한 등반대회에 함께했던 시각장애인에게 배달하였으며 청소년들이 시각장애인과 등반대회에서의 인연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하며 친밀감을 느낌에 있어 더욱 뜻깊은 행사였다.

거제 YWCA | 김의향 부장

청소년 산업체현장 견학(금융캠프)



8월 12일 30명의 청소년들이 청소년산업체현장견학체험(금융캠프)을 다녀왔다. 미래소비자인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소비 경제인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부산한국거래소와 국제시장, 사조산업(주)고성공장을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다. 참여 학생들은 한국거래소(KRX)를 견학, 보드게임을 통한 모의주식투자 등을 체험하고, 국제시장에서는 현명한(착한) 소비를 위해 직접 꼭 필요한 물건을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과 영수증을 주고받는 경험을 함으로써 돈의 소중함과 가치를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둔덕골지역아동센터 연합캠프



거제YWCA둔덕골지역아동센터에서는 8월 18일에서 19일까지 1박 2일간 경주 블루윈 워터파크 & 버드파크로 거제지역아동센터 연합캠프를 다녀왔다. 거제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10개소 아동 300명이 참여한 연합캠프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간 이해증진과 정보공유를 통해 돌봄 확대 강화는 물론 아이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친밀감을 쌓으면서 타 센터 친구들과 우정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캠프를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캠프로 견문을 넓히고, 전인적 발달과 사회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공동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려운 일도 협동하여 대처하며 더욱 쉽게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터득한 뜻 깊은 행사의 장이 되었다.

마산YWCA | 이애라 부장

여성가족부지원 여성중간관리자 역량강화교육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 참여 확대' 공모사업으로 여성중간관리자 역량강화교육을 8월 18일(1차)부터 19일(2차)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한국이그그램연구소 김종호 소장을 강사로 초빙해 진행했다. 조직 내 리더십 역량개발과 조직성과 창출을 도모하고 현장중심의 문제해결 전략 및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하여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사천YWCA | 정희경 간사

아자아자 파이팅! 운전면허 시험 도전!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8월 11일 50여 명의 수강생들이 참석하여 운전면허학과교육 개강식을 가지고 합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교육은 사천경찰서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8월 11일부터 8월 21까지 총 6회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센터는 학과교육을 신청자중 초기입국 결혼이민자가 많은 것을 고려하여 출신국 언어로 된 교재를 활용하였다. 초기입국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어가 서툴러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작년부터 전면 출신국어 학습을 진행한 결과, 결혼이민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양산YWCA | 박경하 간사

결혼이민여성과 자녀가 함께하는 '한국문화 역사기행'



8월 7일 관내 결혼이민여성과 자녀들이 함께하는 '한국문화 역사기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다문화 가족들은 경복궁을 둘러보고 수문장 교대의식을 관람하는 등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인사동을 탐방하여 한국을 상징하는 것들을 보면서 다양한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참가자들 중 다수는 서울 나들이가 처음이었으며 '한국역사와 한국문화 체험을 통해 한국 역사를 쉽게 공부하고 한국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향후에도 한국문화에 대해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창원YWCA | 정미영 간사

2014 제2회 청소년토론포럼대회 '아고라'



8월 16일 창원YWCA는 제2회 청소년토론포럼대회를 열었다. 3명씩 한 팀을 이루어 지난 7월 16일, 중등/고등 90팀이 예선을 거쳐 32팀이 이날 본선에 진출하였다. '함께 누리는 삶(청소년 정의를 외치다)'라는 대주제 아래 중등부는 '원자력 발전소를 폐지해야한다'라는 주제로, 고등부는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라는 주제로 뜨거운 경연을 펼쳤다. 이번 대회는 ㈜중앙금융, 농협창원시지부, 경남은행 기금정지점의 후원에 힘입어 청소년들의 건전한 토론 문화육성을 위한 귀한 경험의 장이 되었다.

“도스프는 친구입니다”



PHOTO BY 이민경

이제서야 지구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

세상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찾는 것.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이 정의 평화 생명 세상의 정신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창조질서가 보존되는 세상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